



지난 12월 9일 열린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본보 朴聖姬논설위원, 李炯均 前관악언론인회장, 모교 成樂寅총장, 관악회 여기자회 申然琇 前회장, 본회 徐廷和회장, 裴仁俊관악언론인회장, 모교 朴明珍 前교육부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韓成林학생부처장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 총회

제3대 회장에 蔡耕玉동문 선출



모교 成樂寅총장, 관악회 여기자회 申然琇 前회장, 蔡耕玉회장, 본회 徐廷和회장, 裴仁俊관악언론인회장

“소속 언론사·매체 초월
교류 활성화하겠다”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회장 申然琇)는 지난 12월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50여 명의 동문 여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3대 회장으로 매일경제신문 蔡耕玉(경영86-90)논설위원을 선출했다. 신임 蔡회장은 “언론계의 관악 출신들이 모이면 소속사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선배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며 “1년에 2번 전체 모임 및 관악회와의 교류 등을 활성화해 비상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015년 乙未年 신년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2015년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소공동 소재)
- 회 비: 없음
- 문 의: 02)702-2233

* 한정된 좌석(최대 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2014년 12월 26일(금)까지 꼭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출추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12월이다. 모교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선출’한 첫 총장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필자가 접한 두 사연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어 걱정된다. 우선, 모교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국방부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ROTC를 설치한 1백15개 대학 중 최하위권에 들었고, 평가 점수도 낙제점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친구이기도 한 모교 교수의 얘기다. 대학원생 중에 모교 학부 출신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 그 대학원생들도

학문적 성취보다는 취업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기초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의 기초 과목을 전공하려는 사람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경우 모두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ROTC를 자원하겠는가. 군 지도자 과정을 거쳤다고 사회에서 특별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Back to the Basic

21개월까지 단축된 軍 복무기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취업 스펙’을 쌓는 게 낫다. 대학원 사정도 마찬가지다. 모교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문에 대한 사명감이 밥 먹여주나, 큰 고민하지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벌고 사는 게 좋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게 놔둬선 안 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든, 국립대학법인이든, 국가와 사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서울대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ROTC 제도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존치되는 한 서울대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더라도 좋은 인재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기초 분야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화로 자율성이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된다. 그 출발은 서울대인들이 국가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일이다. 어지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서울대가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지 못한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이유다.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화두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연말연시다. <李容式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관훈클럽 총무·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대학 가지 말고 배관공이 돼라~.” 억만장자이자 미국 뉴욕 시장을 세 차례나 연임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던진 도발적 발언입니다. 하버드대에 다니려면 연간 수천 만원의 학비를 내야 하지만 배관공이 되면 그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보도국 회의 때 이 소식을 리포트로 만들자고 발 제했다가 적잖은 지청구를 들었습니다. “자기 딸은 대학 보내놓고 남의 집 자식은 ‘공돌이’ 돼도 괜찮다는 거냐”, “미국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오면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할 수 있느냐” 등등 불멘 소리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되더냐”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대신 배관공 취업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제안을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해 전 핀란드 출장길에 만난 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인이 됐지만 내 아들은 본인만 괜찮다면 고등

학교 졸업 후 배관공이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물론 핀란드의 경우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고교 시절부터 취업 연계 교육이 활성화된 시스템을 잘 갖춘 곳이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사실상 10%, 그러니까 실업자가 10명 중 한 명을 웃돈다는 새로운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공식 실업률의 세 배를 넘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삼성 고시’에 목을 매느라 졸업을 미룬 대학생들, 정규직을 꿈꾸

지만 현재 신분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알바생’ 신세인 젊은이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잘나가는 서울대 학생들은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이미 10여 년 전 모교 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알게 됐습니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여자 후배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기에 “왜 굳이 그리 경쟁률이 치열한 곳을 찾느냐. S전자 같은 데는 편히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가 졸지에 물정 모르는 선배가 돼버렸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도 S전자 들어가기에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당시 웬만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은 시험도 안 보고 골라서 갔던 시대와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프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아파하기만 해야 할까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서, 블룸버그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배관공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가려 하는 공무원과 S전자의 길 대신에 남다른 길을 찾는 젊은이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걸 용인하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사회 탓만 하지 말고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그 해법은?

申藝莉
(영문87-91)
JTBC 국제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올래길

李賢載(화학교육57-61)
前여의도여고 교장·시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같이 걷는 길
사랑을 속삭이는 바다가 모래길
입맛을
가리지 않고
발길 따라 걷는 길

물질하는 해녀들의 애절한 숨비소리
잠자리도 쫓아가고 흰 나비도 따라가며
호젓이
가슴을 펴고
노래하며 걷는 길

세월 따라 흘러온 서귀포 맑은 고장
청정한 자연을 오감으로 만끽하며
무명의
번뇌를 씻어내는
탐라도의 올래길

동문칼럼

2014년 9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국제농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이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대학구조조정 열풍이 심하게 불었던 시기에 대학원 신설과 신입생 증원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吳然天 前총장님을 비롯한 대학본부와 농업생명과학대학 구성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대학원 신설의 꿈을 이뤘다.

대학원에는 국제농업기술학과의 1개 학과가 있으며, 경제동물 산업기술, 바이오식품산업, 종자 생명기술, 국제농업공학, 국제농업개발협력의 5개 트랙으로 전공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0명의 석사과정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은 20명 정원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들 학생을 교육할 교수 10명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고, 연이어 15명의 교수님을 더 모실 예정이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은 시설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으뜸가

스도 완비하고 있다.

관악캠퍼스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첨단화상강의시스템을 갖춘 것도 학생과 교수님들께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듯 평창캠퍼스는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출범으로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동북아 농축산식품산업을 이끄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갖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회원국이 됐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이는 과거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차례이다. 하지만 도움에도 순서가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농업분야이다. 우리는 농업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해냈다. 농촌을 변화시킴으로써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할렐은 산을 푸르게 바꾼 유일한 나라이다. 이렇듯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근간을 둔 우리의 발전 사례는 개발도상국에게 따라하고 싶은 그 무엇이 됐다.

우리 대학원은 개발도상국이 닮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농업



李鶴來
(임산가공75-79)
모교 농생대 학장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

국제농업기술대학원 - 서울대의 새 식구

는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에 함께 위치한 실험목장, 첨단온실, 공동기기센터, 디자인동물센터, 산업동물임상연구원 등은 현장중심형 교육과 실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평창캠퍼스에는 학생과 연구원을 위한 식당, 체육관과 헬스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 대학원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곧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방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기술과 경험을 이들과 적극 나누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단순히 과거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 함께 그려보고자 한다.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고자 한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꿈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고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勳,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旻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瑋,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부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瑋

내년 장학금·연구비로 39억원 모교 지원



앞줄 李相赫감사, 李禮植이사, 徐廷和이사장, 韓斗鎭·金秉順·孫一根이사, 뒷줄 朴明潤이사, 孔大植상임이사, 李炯均·鄭世煜이사, 朴英俊감사, 辛鉉雄이사, 朴承熙사무국장

관악회 이사회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徐廷和)는 지난 12월 3일 모교 관악 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뚜아르 룸에서 제121차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徐廷和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창회와 재단법인 관악

회가 한 톨이라도 아껴서 모교의 발전과 국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디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예산 계획을 세웠다”며 “여러 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관악회는 ‘모교와 함께하는 관악회 구성’, ‘동문에게 다가가는 관악회 구축’이라는 사업 목표 아래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목적사업인 장학금과 장학연구지원사업비로 22억원과 17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장학연구지원사업은 교수강의 동영상 제작, 모교 120년사 편찬,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孔大植상임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본회 徐廷和회장(右)이 孫一根 前상임부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孫一根 前상임부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1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본보 편집회의에서 孫一根(법학51-64)前상임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孫 前상임부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14년간 본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과 동문 결속에 크게 공헌했으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본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본보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孫 前상임부회장은 퇴임 인사말을 통해 “지난 14년간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나 가사정리 관계로 인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한 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선배 동문들의 애정을 잊지 않고, 특히 전·현직 회장님들의 고마움을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林光洙 명예회장님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모교 120년사 편찬’과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徐廷和회장님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관악회 여기자회 총회서 신년 활약 다짐

지난 12월 9일 열린 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 총회에는 본회 徐廷和회장, 李炯均부회장,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 본보 朴聖姬 논설위원을 비롯해 모교 成樂寅총장, 朴明珍 前교육부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韓成林학생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申然琇회장은 인사말에서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자주

만나야 가까워질 수 있다”며 “오늘 모처럼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보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매일 시각을 다투는 취재현장에서도 빠른 판단과 핵심 지적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동문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세계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오늘날 여러분의 정론직

필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며, 존경하는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朴明珍 前교육부총장이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자 동문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새해에 관악회 여기자들의 활약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은

“이 자리의 여러분들 중 미래의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주간, 주필이 나올 것을 축원한다”며 “자기 이름을 걸고 한 언론인으로서 세상에 빛나는 인물들이 돼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모교의 여성보직교수들을 소개하고 “서울대와 대한민국도 여성 전성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언론계의 후배분들이 맹활약을 하셔서 앞으로 서울대 여성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李炯均부회장과 한국여기자협회 姜京希회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韓成林학생부처장이 건배사와 인사말을 전하고 참석한 동문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에게 본회 徐廷和회장이 식사비를 찬조하고 볼펜·배지 세트 및 내년도 포켓수첩과 탁상달력을 선물했으며, 成樂寅총장이 모교 달력을 협찬했다. (秀)

제17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해 외 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위의 3개 상에 버금가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해외 동문에게 3년 주기로 시상할 수 있음.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5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 · 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5년 3월 20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제1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1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15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 2015년 2월 중순
7. 시 상 식 : 2015년 2월 26일 관악언론인회 정기총회
8. 문 의 : 02)886-2219

서울대총동창회·관악언론인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71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11월 1~30일 16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55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71명의 동문과 교직원 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故 黃山德(법학41졸) : 黃山德약사 유고 전지자료 등 ▲裴秀煥(정치48-52)동문 : 수료증, 졸업증서, 학위증, 문리대 6회 졸업생 명단, 대학원 석사논문집, 노트 2권, 대학원 원서 1권, 개인 소장 앨범 1권(사진 125점) ▲鄭秉錫(간호52-55)동문 : 간호대 관련 사진첩, 졸업장, 임명장 등 개인관련 문서류 사본 ▲趙俊起(임학54-58)동문 : 농대 합격증명서 및 재학증명서(1954년), 졸업증명서(1958년),

졸업 30주년기념 메달, 수원 임과동문회 정기총회 기념품(1983년), 개교 50주년 기념 모자 및 배지 등 ▲金宣圭(행정55-61)동문 : 개교 50주년 배지 ▲金天旭(기계공학55-59)동문 : 토론상장, 졸업장, 석사학위증서, 계산적 2개(사진) ▲宋春鍾(농학55-59)동문 : 농대 교재, 수업노트, 입학시험 수험표, 학장시절 일기 등 ▲姜昌植(농생물56-62)동문 : 수업노트 2권 ▲全泳杓(언어56-60)동문 : 문리대 제14회 앨범 ▲金哲偉(치의학57-61)동문 : 석사과정 합격증, 석사 및 박사 학위기, 학부 졸업 증서, 전임 강사 임용장, 조교수 및 부교수 발령 통지서, 교수 발령통지

서 2매, 인사 발령통지서 5매, 임명장, 표창장 ▲金德昌(중문59-63)동문 : '서울대' 창간호, '형성' 제4권 등 간행물류, 문리대 버클, 개교 26주년기념 체육대회 메달, 총동창회 창립기념 기념품 등 박물류, 각 단과대학 발간 학생신문(1971년), 학생혁명관련 훈장 등 ▲李五峰(교육61-70)동문 : 졸업식(1957년)·학도호국단·전시연합대학 사진 ▲金明子(식물62-66)동문 : 수험표, 합격증, 열람증, 학생증, 사진 외 모친 徐誠善(경성사범30졸)동문 관련 자료 사본 ▲李尙遇(기계설계79-83)동문 : 학위취득 축하패, 조교 공무원증, 성적카드 2장(1987년), 기계공학과 문진 1개, 서적 1권 ▲黃南周(물리87-92)동문 : 수업노트, 동아리 간행물 '요가' 3권 등 ▲權駿鉉(대학원12-14)동문 : 서울대박물관 영문도록 1점(1964년)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 임성용 차장

핸드폰 : 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裴度運회장(左)이 차기 吳昇煥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동문 음악회로 자카르타 밤 수놓아

차기 회장에 吳昇煥동문 선출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度運)는 지난 11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 애비뉴에서 정기총회 및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열고 동문가족 간 친목을 도모했다.

동문가족 음악회로 꾸며진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趙泰永(경제77-81)대사, 본회 朴承熙 사무총장을 비롯해 56학번으로부터 07학번에 이르는 선후배와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鄭世溶(임산공학87-91)동문은 올해 수시로 모교 농생명과학대학에 합격한 자녀 정은혜 양과 함께 참석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서울대인의 밤'은 宣惠化(산림과학07-12)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동문가족들의 독창, 중창, 기악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카르타 아버지 양상블'이 특별 잔조하기도 했다.

가족 음악회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吳昇煥(경영73-77)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裴度運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대인의 밤' 행사에 출연한 동문 및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특히 수개월간 기획하고 연습을 지휘한 申敦澈(산업미술83-89)동문의 수고에 경의를 표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朴承熙사무총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서울대인의 지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기업의 변형은 물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趙泰永대사는 축사에서 "서울대 동문들이 그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서있기를 바라고, 저 역시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의 대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裴相璟(경제56-61) 명예회장은 그동안 동문들이 많은 진출기업에서 주역을 담당해 왔던 것처럼 점차 어려워지는 세계경제 가운데서도 잘 대비해 나가기 바라며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과 서울대인의 꿈은 영원하리라'를 외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로얄자카르타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농대가 단체우승을 차지해 본회에서 전달한 총동창회장순회배 트로피를 받았으며, 메달리스트는 鄭世溶동문, 롱기스트는 함덕수(수의학85-90)동문, 니어리스트는 김경국(수의학86-90)동문이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는 1990년 창립 이래 현재 1백56명의 등록회원이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는 두 달에 한 번 골프시합과 만찬모임을 열고 있다.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도네시아 국적 동문은 51명이다.

지리산 명소 역사기행

전북지부동창회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1월 1일 동문 및 가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리산으로 가을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이날 동문들은 전주대 李鎬仁(응용화학66-70)총장이 잔조

한 버스 두 대로 지리산 피아골에 자리한 연곡사와 화엄사를 탐방하며 가을의 운치를 만끽했다. 점심에는 金聖吉(법학60-64)회장의 잔조로 식사를 함께 하며 정담을 나눴다.

전북지부는 매년 가을에 동문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각지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秀)



金信一동문(右)의 건배 제의에 따라 (테이블 좌로부터) 安洋玉·全泰源·文龍麟·鄭元植·李揆澤동문이 잔을 높이 들고 있다.

마포에 임대수익용 건물 매입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揆澤)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건물매입 안건에 대한 주인을 받았다. 동창회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빌딩을 31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빌딩 매입 자금은 과거 광화문 인근에 있던 동창회관 매각대금 및 6백여 명의 동문이 보내준 기금 22억4천만원과 9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 건물은 전체 임대수익용으로 활용되며, 동창회는 월 2천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사대동창회는 장학회 자금을 포함해 총 3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며 공대동창회(엔지니어하우스), 의대동창회(합춘회관)에 이어 단독 건물을 확보한 동창회가 됐다. 한편 송년회를 겸한 이날 모임에는 李揆澤회장, 鄭元植 前국무총리, 金信一 前부총리, 元惠榮 국회의원, 한국교총 安洋玉회장, 사범대학 全泰源학장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졸업 기념 모교로 추억여행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최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강당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60·50·40·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오전에 관악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연건캠퍼스로 돌아와 모교와 동창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어 梁光姬회장과 모교 朴賢愛학장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해 스승, 동문들과 정담을 나눴다. 梁光姬회장은 “한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의 만남은 훌륭한 선배의 지혜를 배우며 후배들의 총명함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며 “학창시절로 돌아가

추억에서 힘을 얻고 친구의 얼굴에서 나를 만나며, 희망을 꿈꾸던 모교에서 위안과 평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후배 재학생들의 댄스 공연을 비롯해 남자간호사회 金長彥(간호79-84)회장과 40·50주년을 맞은 동문들의 흥겨운 노래 한마당이 펼쳐졌다. 동문들은 학창시절 동영상을 감상하며 모교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마무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31일 경복궁 나들이로 친목을 다졌다.



등산·바둑대회로 친목 다져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東建)는 지난 11월 1일 서울 도봉산에서 제10회 친선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金東建회장을 비롯한 동창

회 임원과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일찍 접수를 끝낸 동문들은 가족 또는 동기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도봉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이날 등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봉산 매표소를 출발해 통일교, 산정약수, 보문능선과 전망대를 지나 우이암을 등정한 후 문사동,

금강암을 거쳐 하산하는 풀코스라, 보문능선 중간지점에서 친선사 방향으로 우회해 하산하는 단축코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등산을 마친 뒤 산 아래 음식점에서 오찬을 나눴으며 경품 추첨 등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한편 동창회는 11월 22일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꿈속 정물, Oil on canvas, 130.3×162.2cm, 2012년

※ 작가 한마디 : “무한한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꽃과 과일이 정물화의 형식을 빌려 무중력 상태로 배치된, 전통적인 유희기법으로 제작된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화려한 꽃과 과일들이 허공에 떠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꿈속에서 보는 정물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徐明德作

<작가약력>

- ▲1975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 ▲1977년 모교 대학원 졸업
- ▲개인전 4회
- ▲한국인물작가회전, 한·러 현대화화 초대전, 한국미술협회전, 한국미술작가상 대상수상전, 세계평화미술대전, 호주 RMT 대학교 교류전, 대한민국회화제, 서울오피아트페어 등 국내외 단체전 다수
- ▲前세계박물관협회 자문위원·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상명대 총장
- ▲現상명대 미술학과 교수·모교 미대동창회 부회장

식품영양과 주관 강연회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11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과학대학 222동 崔炳五홀에서 대항병원 李斗漢(의학76-82)대표원장을 초청해 ‘일반 건강상식과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식품영양학과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특강을 들은 후 소담마루 식당으로 옮겨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시상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金建浩)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金建浩회장, 姜寅求고문, 미주 수의대동창회 李在鉉회장, 모교 수의대 柳判童학장을 비롯한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으로 미국 뉴저지주 캄덴시 보건국장을 역임한 崔定鉉(수의학58-64)동문과 바이오톡스텍 대표, 충북대 교수로 활동 중인 姜鍾求(수의학76-83)동문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어 동창회 고문으로 수고한 金澤洙(수의학55-59)·車鍾相(수의학56-60)동문에게 공로패를, 李道弼(수의학49-53)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87학번 동기회(대표 邊炯旭)는 장학기금 1천3백만원을 출연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으로 선정된 姜鍾求동문은 ‘나의 수의학, 교수, CEO, 그리고 바이오’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명화 담은 달력 제작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과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최근 동창회 달력을 제작해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월간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스토리가 있는 근현대 명화’를 주제로 제작됐으며, 경희대 이택광 교수의 해설이 수록됐다.

입학 50주년 준비위 구성 동승클럽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李允陽)은 최근 내년 입학 50주년을 기념해 ‘50주년 특별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宋泰鎬(사회65-72)동문을 선임했다. (南)

ShinhanCard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신한카드 Simple

서울대 총동문회 회원만을 위한 제휴카드 1장으로
할인 및 회비 자동납부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연회비] VISA 1만원

신한은행 결제계좌로 변경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혜택 1



6천원 캐시백

신한은행 계좌변경 후 30일 내(변경일 포함) 1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
카드이용 10만원 이상 발생시점 익월부터 **2개월간 총 6천원**(3천원×2회)
캐시백 제공(매월 25일 경)

혜택 2



신한은행 금융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계좌변경 즉시 적용[단, 신규회원의 경우 신규일 + 7영업일 후 적용]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송금수수료, CD/ATM 마감 후 출금수수료
3개월간 최대 30회[월 최대 10회×3개월] **면제**(전 수수료항목 합산 적용)

※ 이벤트 행사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진행 중 이벤트를 참고바랍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본 카드의 서비스 내용은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 사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고지하여 드립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금리에 따라 23.0~29.5%가 적용됩니다.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141014-0132-002(2014. 10. 14 현재유효)



총회서 장학금·도서지원금 전달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洪起俊)는 지난 11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302동에서 추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洪起俊(화학공학69-73)회장, 李熙贊(공업화학79-83)총괄부회장, 전주대 李鎬仁(응용화학66-70)총장, 李漢壽(화학공학53졸)원로 동문을 비롯해 동문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洪起俊회장의 인사말과 모교 李鍾贊(공업화학85-89)교수의 학

부 소개에 이어 동창회는 전임 회장 및 간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모교에 장학금 및 도서지원금을 전달했다.

만찬 뒤 가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동문 가족이 단합하며 푸짐한 경품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동창회는 11월 1일 블루원 용인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동문 38명이 10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 우승은 申彰秀(화학공학81졸)동문, 준우승은 尹丙元(화학공학82졸)동문, 메달리스트는 朴賢穆(공업화학79-83)동문이 차지했다.



‘성차의학’ 주제 학술대회 열어

함춘여자의사회

함춘여자의사회(회장 白賢旭)는 지난 11월 1일 모교 연건캠퍼스 어린이병원에서 朴仁淑(의학67-73)전임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차의학(Gender-Specific Medicine, GSM)을 주제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Gender Difference’를 살펴봤다. 특히 일본에서 성차의학을 도입하고 학회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아미노 前동경대 교수를 초청해 이목을 끌었다.

분당 모교 병원 소화기내과 金那英(의학80-86)동문은 대장암을 주제로 남녀 간의 질병유형의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발표했고,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鄭熺然(의학82-88)동문은 암 질환과 여성 환자의 정신 건강, 한양대 병원 피부과 고주연 교수는 피부 질환 중 대표적인 여드름을 주제로 남녀 간의 발생 현황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다뤘다.

白賢旭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

에 따른 ‘성차의학’에 대해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함춘여자의사회는 보다 더 다양한 학술 교류를 실시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9회 ‘금속의 날’ 개최

금속동창회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李承輝)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29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李承輝(금속공학69-73)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權五俊(금속공학68-72)前회장을 비롯해 1백5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행사를 위해 李회장이 2백만원과 식기세트 1백10점, 孟涉(금속공학59-65)·權五俊·許善茂(금속공학69-73)·崔楊河(금속공학69-73)동문, 27회 동기회 등이 각각 1백만원, 金東秀(금속공학68-72)·崔漢明(금속공학70-74)동문 등이 각각 50만원, 鄭弘溶(금속공학64-68)동문이 수건 2백세트 등 여러 회원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성황

문리대 OB산악회

문리대 OB산악회(회장 崔仲基)는 산악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산악회 창립멤버인 金榮潤(불문53-57)·朴炳昭(물리53-57)·元憲燮(정치53-57)동문을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崔仲基(해양69-73)회장은 “지

난 3년간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에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목표로 삼았던 네 가지 사업이 잘 이뤄졌다”며 “마지막으로 오늘 60년사 발간과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세 분의 창립회원 선배님들도 오시고 국내의 주요 산악단체 임원들과 재학생 회원들까지 함께 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산악회는 60주년을 기념해 60년사 편찬, 백두대간 원류 탐사, 울산암 코스 재 정비, 재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자랑스러운 동문 6명 선정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회장 李熙國)는 11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貞植고문, 李熙國회장, 전자전기정보공학재단 李秉基이사장,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李光馥학부장을 비롯해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올 한 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대상에는 모교 李忠雄(통신공

학54-58) 명예교수가 선정돼 동문들의 축하를 받았다. 李명예교수는 1990년대 중반 TV산학협동 컨소시엄을 조직해 오늘날 세계 제일의 UDTV 산업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金汎晚(전자공학68-72)교수, 스타트 IT융합시스템연구단 慶宗旻(전자공학71-75)단장, 커리어인스티튜트 東方淸天(전자공학72-79)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金興南(전자공학75-80)원장, 한국항공

문리대 OB산악회는 1954년 결성돼 오대산 등반을 시작으로 1970년 일본 후지·남북알프스 전지훈련, 1980년 남미 아콩카구아 등반, 1985년 히말라야 히말추리 정찰 및 상구추리 등반, 1992년 알프스 북벽 등반을 해왔다. 1994년 창립 40주년에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해 40년사를 발간했으며 전 회원이 백두대간을 40구간으로 나눠 종주했다. 2004년 50주년을 기념해 동서문명 교류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무즈타크 아타(7천5백46m) 등반과 역사와 문명이 만나는 ‘비단길’을 학술탐사한 바 있다.

대 李康熊(대학원80-82)총장 등도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또 동창회 간사장으로 수고한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朴炳國(전자공학82졸)교수에게 감사패를, 17회·31회·35회 동기회에 다수참석 기상을 수여했다.

이날 안과 전문의이면서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있는 徐鍾模(의학90-96)동문이 ‘근시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행사를 위해 金貞植·李梓旭·李熙國·宋文燮·林亨圭·金興南·安丞權·李京國·金達洙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南〉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과 한국학연구소 설립기금 모금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제23차 전국평의원회의에서(2014년 6월 28일)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건립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와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Think Tank의 포럼, 브리핑,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구 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서구 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한국’ 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서구, 특히 영미 사회에 꾸준히 전파했습니다.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이러한 일본의 악선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 학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학으로 시작한 미주 한국연구자 1세대와 이들에게 훈련된 2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 이민 2~3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 혹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편향돼 온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학 연구 관행을 바로 잡는 이번 사업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합니다. 2015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며 가시적인 연구 결과를 내면서 2019년까지 1천만 달러(약1백10억원)의 예산을 갖춘 Think Tank를 만드는 대장정입니다.

연구지원 및 연구소 설립기금 모금과 동시에 준비위원회와 창립회원을 구성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河龍出(외교67-71)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 李塚畛(정치55-59)미주동창회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吳仁煥(전문기상63-67)미주동창회장

— 연 락 처 :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처 703-462-9083, 吳仁煥회장 : 301-775-3919
— e-mail : ioh0858@comcast.net / snuaausa12@gmail.com



앞줄 李永壽·尹碩峻·金明圭·李弼雨·崔烈坤·朴正燾·金禹淵·朴台東·徐廷權 동문, 뒷줄 趙容直·金珍汪·金演洙·李廷益·張周鎬·李在昌 동문

국가정책인 대상 5명 시상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朴寬用 前회장, 李弼雨회장을 비롯해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인의 밤 및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崔烈坤(6기)심사위원장의 수상자 선정 심사보고에 이어 제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기업경영 부문에 대연진흥 金禹淵(14기)회장, 행정경영 부문에 진명스텝스 金明圭(29기)회장, 문화예술경영 부문에 벽산기업 尹

碩峻(33기)대표, 사회봉사 부문에 경일석유 李永壽(48기)상무, 의료보건 부문에 베스트웰김진왕 성형외과 金珍汪(77기)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1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李弼雨회장을 재추대하기로 의결했으며 내년 2월 24일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1백여 동문 속리산 등산 ACPMP동창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秀顯)는 최근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교 건축학과 洪性傑(건축77-81)교수, 한

국건설산업연구원 金興洙(경제78-82)원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속리산 화북매표소에 집결한 동문들은 문장대~법주사 코스를 등반한 후 점심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행사를 위해 鄭秀顯회장, 金容珩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동문들의 다양한 후원이 있었다.

음악 어우러진 송년회 SPARC동창회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朴煥熙)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컨벤션에서 朴煥熙회장, 모교 자연대 吳鍾南·李岡根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기타·팝페라 등의 음악공연과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여주 캐슬과인GC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의 우승은 李大馥(22기)동문이 차지했다.



송년총회서 5대 權棋大회장 취임

IFP동창회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金光憲)는 지난 11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교 인문대학 裴永洙 前학장, 張在盛학장, 趙顯高·李永睦·張辰城교수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제5대 회장에 權棋大(7기)동문, 감사에 최치현(1기)·하상욱(6기)동문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구본훈(8기)동문, 사무총장에 최경환(7기)동문, 재무총장에 허운정(7기)동문을 선임했다.

또 골프회장에 姜淳奎(1기), 산

악회장에 박경기(1기), 여성원우 회장에 이병례(1기), 법률정보 자문위원장에 박성기(10기), 의료정보 자문위원장에 김재유(6기), 세무회계 자문위원장에 최석조(6기), 광고홍보 자문위원장에 姜晉基(1기), 유학상담 자문위원장에 이창준(3기), 입시정보 자문위원장에 이유희(11기)동문을 각각 추대했다. 이어 전임 金光憲회장, 박영욱 수석부회장, 하상욱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찬과 함께 음악공연팀 ‘덤덤하모니’의 노래와 연주를 즐겼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9일 동문가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경복궁에서 문화강좌를 가졌다.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결혼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고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원본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成宇濟교수 골프 우승 AIP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景載)는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상록GC에서 본회 鄭八道부회장, 李景載회장, 모교 공과대학 姜泰晋교수 등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골

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본회 鄭八道 부회장, 李景載회장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의 금품 협찬이 있었다. 경기결과서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 裴基榮(31기)동문 ▲개인전 우승 : 成宇濟(조선공학82졸)교수, 준우승 : 백인창(32기)동문 ▲단체전 우승 : 48기, 준우승 : 32기

11회 공연 ‘맨 프롬 어쓰’ 올려

공대 연극반OB 실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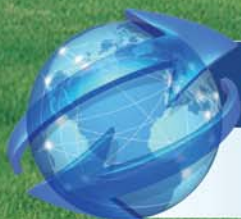
공과대학 연극반 출신 동문들이 설립한 극단 실극(회장 韓承佑)이 지난 11월 7~9일 서울 대학로 SM아트홀에서 제11회 정기공연작 ‘맨 프롬 어쓰(Man from Earth)’를 무대에 올렸다. 이번 공연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李泰植(토목공학73-78)원장, 부산대 權赫喆(전자계산77-82)교수, 삼이솔루션 韓承佑(전기공학77-84)대표 등이 공동제작자로 참여하고 공상집단 똥판지 文三和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배우로는 金仁洙(건축74-79)·李相憲(건축78-82)·崔琦昌(전자공학81-85)·朴永杰(전기공학81입)·金光顯(공업화학91-95)·박내선(토목공학93-98)·金槿美(자원공학94-99)동문 등이 출연했다. 극단 실극은 1986년 창단 이래 1988년 다리오 포 원작의 ‘안 내냐? 못 내냐!’를 시작으로 2012년 레지널드 로즈 원작의 ‘12 배심원’에 이르기까지 2~3년에 한 작품씩 정기공연으로 관객들과 호흡해 왔다. (邊)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SGI서울보증이 함께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대한민국 대표 보증기관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고객의 성공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Global 대표사무소

• 뉴욕 • 하노이
• 북경 • 중동

Global신용등급
S&P A Fitch AA⁺

세계 4위
보증기관
(ICISA 회원사 기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 보증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 보증
전월세자금대출 보증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오토론 보증



납품/공사 계약 체결 때
이행 보증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Counter Guarantee
(구상보증)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
반가운 금융이 되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KB금융그룹



* KB 국민은행
* KB 생명
* KB 저축은행
* KB 신용정보

* KB 국민카드
* KB 자산운용
* KB 부동산신탁
* KB 데이터시스템

* KB 투자증권
* KB 캐피탈
* KB 인베스트먼트

* KB 금융그룹

화제의 동문

남극세종과학기지 安仁英대장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출범 후 첫 여성대장이 탄생했다. 극지연구소 安仁英(간호75-79·해양79-82)책임연구원이 그 주인공.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남극기지 여성대장 임명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도 처음 있는 일이다. 남극기지 시설이 남성 위주로 돼 있는데다 생리적 문제 등으로 여성이 극지에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제28차 월동연구대장을 맡은 安동문은 1991년 남극하계연구대 첫 여성 대원으로 뽑힌 후 남극만 13차례 다녀온 베테랑 연구원이다. 극지연구소에서도 선임연구본부장, 극지생물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정부가 그에게 세종기지 운영을 맡긴 이유다. 17명으로 구성된 월동연구대는 11월 24일 출국해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1년간 상주하며 기지 운영과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安娜동문도 대원으로 합류

출국 5일 전인 11월 1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만난 安仁英동문은 “10여 차례 다녀온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롭다”며 “이번 차수에는 상시적인 연구활동 외 관측동도 새로 건설하고 고립된 공간에서의 심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직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어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계속 심어줘야 하고요. 대부분이 이곳에서 처음 만났고, 고립된 공간에서 반복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겨울에는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고, 여름에는 백야가 지속되는 환경도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수평적인 리더십 아래 주기적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운동대회, 장기자랑 등 이벤트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17명의 대원 가운데 극지연구소 출신은 단 세 명.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해군 과견 이거나 별도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다. 연구기지 관리와 장비를 다룰 엔지니어 6명, 연구원 6명 이외에 요리사, 의사, 총무 등이 4명이다. 이 가운데 또 한 명의 여성대원으로 安娜(응기원09-13)동문이 포함돼 있다. 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행복한 남극월동 디자인’이란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安대원은 安대장을 도와 대원들의 안정적인 남극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安娜대원을 뽑은 이유가 딱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원이라

다. 남극의 생물들은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이들의 모습을 통해 기후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남극 연구에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비해 우리가 얻는 이득이 적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인류공영의 측면, 선진국으로서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남극조약의 효력이 다하는 2048년 이후 남극대륙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만큼 명분이 있어야죠.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기지를 세운 중국은 현재 3개를 지었고 또 하나를 대륙에 지으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우리는 인프라 측면에서 쇠빙선도 갖고 있어 남극에서 10위권 정도 될 텐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安동문은 간호사 면허까지 취득한 후 적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 해양학으로 눈을 돌려 2학년으로 편입, 모교에서 대학원까지 마쳤다. 뉴욕주립대에서 연안해양학 박사 취득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극지연구부서로 오면서 남극과 인연을 맺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남극을 간다고 하니까 용기와 모험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면서도 남극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운명처럼, 꿈꾸기도 전에 남극이 저에게 온 거죠.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남극에서 환갑을 맞이하는데, 나머지 후반부 인생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지 정리 좀 해야겠어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南)

모교 소아정신과 金在源교수

모교 어린이병원이 국내 최초 어린이·청소년 우울증 전문클리닉을 개설했다.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이 클리닉의 이름은 ‘MAY’(Mood and Anxiety clinic of Youth). 아동청소년이 겪는 우울증과 불안증, 자해·자살위험, 기분조절문제, 조울병 등의 증상과 심각도에 따라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모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金在源(의학91-97)부교수가 담당교수를 맡아 수요일마다 진료를 본다. 클리닉 개설에 앞장서고, ‘어린이 달’ 5월을 뜻하는 이름 ‘MAY’를 지은 것도 金교수다.

지난 11월 24일 연건동 어린이병원에서 만난 金교수는 클리닉 개설 배경으로 어린이·청소년 우울증의 심각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성인기까지 전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 우울증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면 학업 부진이나 게임 중독, 약물 남용, 비행, 성인기 재발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해·자살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소아우울증 치료 대가들 사사

“아동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정신과적 위험요인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최근에 본 사례로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죽겠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위험에 놓이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해요.”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10대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해 최상 위권을 달리는 우리나라에서 ‘MAY’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金교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피츠버그대 병원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그곳에서 소아우울증 관련 연구의 일가를 이룬 멘토들(David Brent, Neal Ryan, Boris Birmaher)에게 두루 배우고 돌아와 연 것이 지금의 클리닉. 성인기 우울증과 달리 아동청소년기 우울증은 불안장애나 ADHD, 품행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기에 소아정신과의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는 그의 설명이다.

국내 첫 어린이청소년 우울증 클리닉 개설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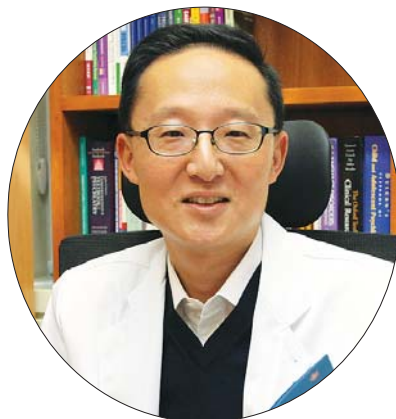
우울증에 걸린 아이는 몇 가지 경고 증상을 보인다.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짜증을 내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는다. 친구관계나 수면 패턴, 식욕, 체중 등에 변화가 생기고 두통이나 복통이 잦아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적어도 네 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우울증으로 진단되면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된다. ‘MAY’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반응 등을 전부 수치화해 그 기준에 따라 치료하는 방식을 확립하려 노력

중이다.

金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를 받는 아이들 대부분이 ‘공부량이 많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같은 학업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들은 ‘공부 잘 하게 하려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를 잘 알기보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인지하고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이뻐 이미 우울증이 깊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됩니다.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金교수는 “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모의 역할을 맡아 돕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소아정신과를 택한 것도 아이들을 좋아할 뿐더러 그러한 특유의 치료적인 접근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영화 칼럼니스트 활동도

金교수의 진료실 밖 취미생활이 궁금했다. 수줍은 말투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답한 그는 알고 보니 학창시절 독립영화 감독을 꿈꿨고, 의대 영화동아리 ‘8과 2분의 1’을 만든 데다 공포의 시절 영화제도 개최했던 영화 마니아다. 영화전문지에 ‘돌팔이’라는 필명으로 칼럼도 연재했다. 지금도 시간이 나면 병원 근처 극장을 찾는다.

끝으로 초등학교와 중학생 두 자녀의 아버지인 그에게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법’을 물었다.

“알아도 실천은 잘 못 하는데... 저녁식사를 자주 함께 해요. 공부 얘기보다 요즘 관심사나 고민은 뭔지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려 하고요. 요새 ‘毒親’이란 말도 있는데, 자녀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우는 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유혹에 흔들리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제게 진료받는 아이들에게도요.” (秀)

화제의 동문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차별화된 개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경험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8~40층 | T : 02-2112-5500 | F : 02-2112-5554 | <http://healthcare.snuh.org>



BABY FIRST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77 (순인빌딩 4-5F) (주)엔빌
TEL : 080-541-5000 www.attopangea.com | 공식수입처 : (주)엔빌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5-20 TEL. 02-512-6935
종로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77 TEL. 02-2266-6935

공식판매처 : 아토판지아() CJK macpac TIMBUKTAI blurr

아이넷 방송 그룹

당신의 평생친구
‘100일부터 100세까지’



inet-TV

- inet production, Ltd
- inet insu, Ltd
- inet live, Ltd
- inet Box, Ltd

inet-life

- 아이넷 상조
- 아이넷 여행, 크루즈
- 아이넷 유학, 어학연수
- 아이넷 웨딩
- 아이넷 행사
(집안, 기업, 각종 이벤트)



박준희

아이넷 방송 그룹 회장
자연과학대학(SPARC)총동창회 회장
이학박사

“법인화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특별 인터뷰

모교 成樂寅총장



모교 제26대 총장으로 법학부 成樂寅(형정69-73)교수가 선출됐다.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成樂寅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는 成총장이 내건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선한 인재 양성’, ‘분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드러운 성품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리더십의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5일 취임식 이후 국정감사 등 바

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成樂寅총장을 11월 26일 모교 총장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모교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成총장은 “모교는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교의 역할과 함께 법인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적 측면을 갖게 됐다”며 “총장으로서 또한 법학자로서 대학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인재들을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담 : 許文明(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논설위원

— 늦었지만 모교 제26대 총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7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니 벌써 넉 달이 지났네요.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손에 익고, 이해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년계획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총장이 새로 바뀌면 관례적으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4년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합니다. 기존의 기본 포맷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저는 미래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교는 연건캠포스까지 합하면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에 근접할 만큼 조직이 아주 큼니다. 이러한 조직을 앞으로 4년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중점적인 사안들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임 吳然天총장님께서 법인화 과정 중에 있던 서울대를 이끄셨다면 저는 법인화 이후 첫 총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 구성 문제 등 법인화 이후 달라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 처음 실시된 선거제라서 총장 선출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임명제로 진행되던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고, 다시 간선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간선제로 진행했죠. 그런데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점수 체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이 생겼다고 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될지요.

“우선 이사들로 구성된 ‘총장선거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학내 구성원들이 중심이 된 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위원회의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있을 총장 선거에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成총장은

1973년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남대를 거쳐 지난 1999년 모교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법과대학 교무부장 겸 법학부장 및 학장, 교수협의회 이사, 교수윤리위원회·대학인사위원회 및 양성평등위원회·평의위원회 위원, 법인화위원회 거버넌스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활동으로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경찰위원회 위원

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의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학조근정훈장(2005), 상허대상 법률부문(2010), 한국헌법학회 학술상(2012), 대한민국법률대상 학술상(2014)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14권에 이르는 법학도의 필독서로 뽑히는 ‘헌법학’을 비롯해 ‘헌법학 입문’, ‘프랑스헌법학’, ‘만화 관례헌법’, ‘우리 헌법 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등이 있다. 특히 1988년에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불어판)’를 출간한 바 있다.

‘총장선거 제도개선 위원회’ 등 설치 2020-20프로젝트...세계화·국제화 앞장

— 법인 체제가 2년 반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과도기적 입장을 보이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인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무엇보다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국립대학교의 역할과 기능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법인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모교를 둘러싼 법인이 병원을 포함해 16개가 있어 제가 법학자로서 법적인 지식을 동원해 해결해야 할 거버넌스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립대학교 법인 소속인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교육과 연구가 아우러져 있어 세금이 면제인 반면 모교 병원은 교육법인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돼 있어 1년에 4백6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발전재단을 독자적으로 가진 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모든 법인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지만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보지

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부교육 강화와 인성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누가 뭐래도 대학의 본질은 학부교육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가면서 학부교육이 조금 소홀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기본 교육철학이 ‘선한 인재 양성’입니다. 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간오지, 도서벽지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 중에서도 모교에 입학해 잘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잘 발굴해서 키우는 겁니다. 기존의 장학제도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다 보니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정작 공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학부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7백50명이 다니고 있으며 그중에는 보육원 출신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력은 있으나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선한 인재 장학금’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등록금 외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숙사 우선 제공을 통해 30만원으로도 기본 생활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듯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대 교수 시절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당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어 따로 면담을 해보니 시골에서 올라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외를 3개씩 하느라 정작 학과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더 좋은 학생 대신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더니 몰라보게 향상됐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현재 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한 것인 만큼 제 개인은 물론 학교 입장에서든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이 학생의 경우가 제가 추진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 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 매년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의 순위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총장님께서 제안한 ‘2020-20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우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020년 세계 2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 모교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은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학술공동체가 선도하는 선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를 열어 가는 것이 국가와 세계에 대한 모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SNU inbound & outbound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SNU in Beijing, SNU in Tokyo, SNU in Washington, SNU in Moscow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모교의 세계화 및 국제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에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리의 경우 총장이 직접 내년 2월 모교 방문 의사를 전달해 온 상태로 양교에 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선한 인재’ 발굴·육성이 서울대가 해야 할 일

☑ 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여름방학 때는 38개국에서 5백여 명의 학생이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교와 MOU를 맺은 대학은 전세계 3백20개교입니다.”

—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울대 교수들의 겸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도 교수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사외이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현재 2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 차원에서 기업들이 전공분야별로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교에도 현재 많은 기업이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학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사외이사 활동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작년 수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국감에서 그와 관련해 질문을 받아 답한 내용인데요. 이는 국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출제를 잘못해놓고 피해는 학생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구제를 받아도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누구보다 수험생 자녀를 둔 동문들이 가장 궁금해 할 질문인데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나 기계적인 수치는 인재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자가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의식과 탐구활동, 학습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거뒀는지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2천개가 넘는 고등학교 중에서 단 한 명도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하지 못한 고등학교가 아직도 많습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산간오지 등 시골의 학교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도 모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칫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총장님의 교육관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교육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균형을 많이 잃었다고 보시는 것이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단정



경제적 빈곤 학생 7백50명 동문 손길 필요 저서 ‘헌법학’ 14판 인쇄…법학도 필독서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지 않나 봅니다.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많은 나라일수록 건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사회에 우수한 인재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재 너무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문제도 갖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폐지론’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70년간 모교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킨 그 공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서울대 폐지론’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모교 출신들이 지혜만 앞서가면서 이타심이 부족한 영향도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앞으로는 모교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하고, 또 그것이야말로 모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총장님의 인생관은 무엇이며, 또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정과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조금이나마 내 능력에 맞게 모교 발전에 힘쓰고, 사회적으로도 봉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마침 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어서 시스템은 물론 법적 지위 자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학자로서 법과 원칙에 맞게 대학을 정상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 11월 중순 예정돼 있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시흥캠퍼스와 관련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MOU가 체결됐고,

“사실 제가 4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모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직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주임교수를 거쳐 8개월쯤 교무부 학장을 맡게 됐습니다. 교무부학장이 수석 부학장으로서는 살림을 맡고 있는 중요 직책이라 처음에는 고사했지요. 다른 교수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결국 맡게 됐고, 그 뒤에 알다시피 학장도 하고, 이제는 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비결이란 딱히 없습니다. 다만 교수님들이 할 일이 무척 많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는데, 그에 대한 평이 좋았나 봅니다.”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40대에 건강이 좋지 않아 러닝머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5년간 꾸준히 하며 땀을 뻘뻘 흘렸던 때도 꼭 챙겨 입던 내복을 지금은 입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더군요. 요즘은 바쁘기도 해서 매일같이 운동하지 못하는 대신 목욕탕에 가서 땀을 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연세대를 포함해 일부 대학에서는 총동창회 회장을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모교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구성원 문제가 제도화된다면 누구보다도 우선으로 총동창회장님이 포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 역시 동창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6월 전임 吳然天총장님과 역사연구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1백억원 규모의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 봅니다. 徐廷和회장과 총동창회에서 각각 50억원씩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교에 역사연구기록관을 건립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측에서 요청한 장소를 최대한 반영한 후 캠퍼스위원회와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하루빨리 좋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문들에게 다짐이랄까, 총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사랑으로 모교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만큼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교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재학생이 7백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邊廷朱기자·정리=林香默기자)

제가 총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협약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아직 시흥캠퍼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구속력을 동반하는 협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연기를 시키게 됐습니다. 이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출범한 미래실천위원회에서 미래 교육수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미래 교육을 위한 초석이 될 시흥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하시다가 모교로 돌아와 학장도 맡으시고, 이제 총장에게까지 선출됐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아바만 보고 싶었을까!



엄마! 아바 뭘 믿고 결혼한거야?

결혼,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결혼
이제 믿을 수 있는 **대명그룹의 결혼정보회사**
대명위드원과 함께 하세요.

사람중심 신뢰우선의 대명그룹이
국내 최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만남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 동문 및 자녀분들께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전담 커리어매니저가 상담에서 결혼까지 책임집니다.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대명위드원 1588-3883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서초-국내-08-0013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 창 호** (산업공학과 76卒)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녹색·책임·경쟁력 연구소

뉴패러다임 경영 컨설팅
기업 경영에서 검증된 피터 드러커의 강점기반, 가치공유, 미래창조 리더십의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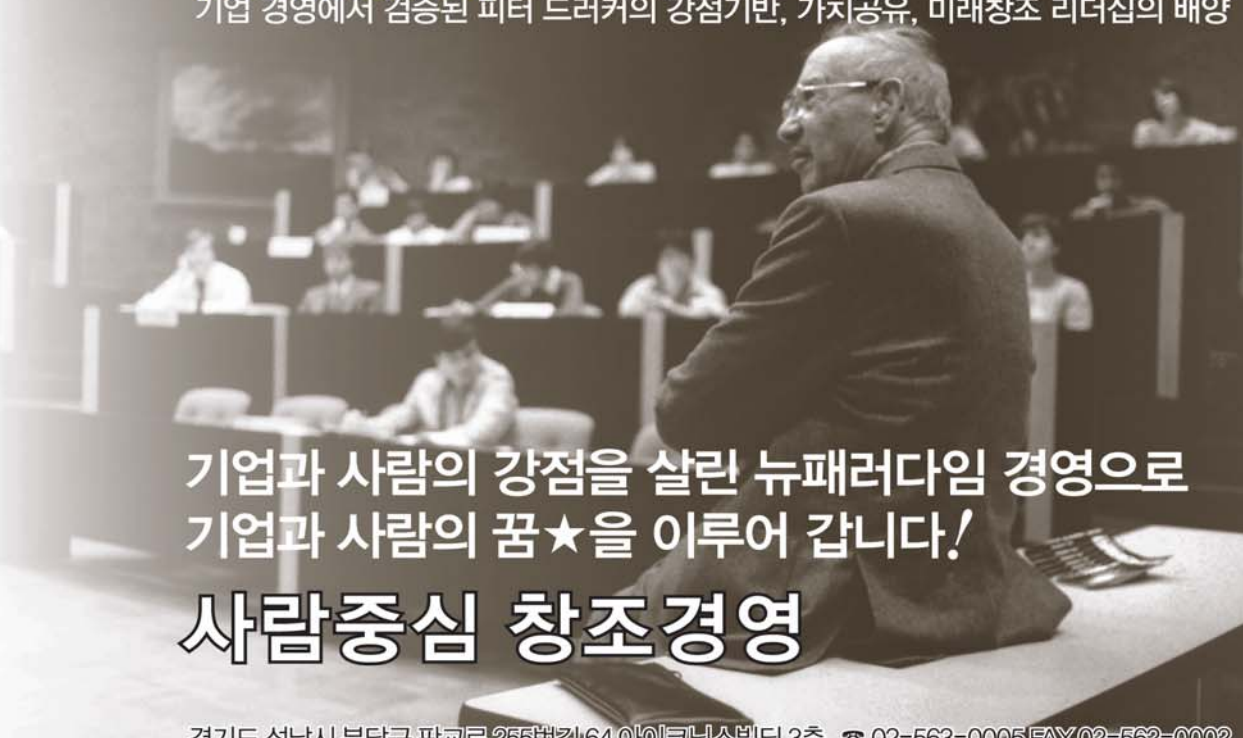


대표이사 문국현

- New Paradigm Institute 대표이사
- 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전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
- 미 드러커 인스티튜트 이사

기업과 사람의 강점을 살린 뉴패러다임 경영으로
기업과 사람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중심 창조경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아이코닉스빌딩 3층 ☎ 02-563-0005 FAX 02-562-0002

제4회 체육인의 밤 행사

2백여 동문·재학생 한자리에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제4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모교 운동부 재학생과 체육 관련 동문들의 교류·친목은 물론 체

육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모교 金鍾瑞교육부총장, 金正漢학생처장, 체육교육과 朴吉俊명예교수, 본회 朴承熙사무총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安洋玉회장과 스포츠계 원로, 35개 운동부 재학생 등 2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金鍾瑞교육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체육인 동문들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스포츠 정신을 통한 자아실현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우리 모두와 모교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이날 朴承熙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 체육인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 모교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교총 安洋玉회장의 축사와 모교 체육교육과 崔義昌교수의 올해 운동부 활동 및 발전기금 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모범 운동부원 시상과 굿스포츠퍼슨상 및 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굿스포츠퍼슨상은 모교 야구부를 헌신과 열정으로 지도한 야구부 李廣煥감독이 받았으며, 모교 체육부장을 역임한 체육교육과 金善振교수가 공로상을 받았다.

본회는 올해의 모범 운동부원으로 선정된 재학생 5명에게 내년 1학기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秀〉



앞줄 金正漢학생처장, 韓仁圭명예교수, 崔鉉哉교수(右) 부부, 成樂寅총장, 李銓濟교수, 金秉文교무처장, 뒷줄 羅承日교수(右) 부부, 劉尙烈교수(右) 부부, 李鶴來학장

상록연구·학술·교육상 시상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鶴來)은 지난 11월 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22회 상록연구대상, 제14회 학술상, 제12회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록연구대상 수상자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崔鉉哉(축산 73-80)교수, 학술상 수상자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劉尙烈(식품 공학 78-82)교수, 교육상 수상자에 농산업교육과 羅承日(농업교육 81-85)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崔鉉哉교수는 모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26년간 전통축산 분야에 생명공학을 도입해 기술집약적 동문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록연구대상을 수상했다.

劉尙烈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전 세계 식품미생물학 분야를 선도한 업적을, 羅承日교수는 새로운 학문 수요에 맞춰 학과명을 농산업교육과로 개명하고 학과를 산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李舜鍾학장이 成樂寅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발전기금 조성전시회 개최

미술대학

미술대학(학장 李舜鍾)은 지난 12월 5~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전시실에서 발전기금 조성전시회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Ⅱ’를 개최했다.

미술대학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모교 발전기금과 전시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모교 미술대학 현직 교수와 동문 작가 90여 명이 2백2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동 전시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소

장할 수 있도록 소품 위주의 작품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수익금은 미술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돼 새로 신축되는 예술박물관연구동과 미술대학 시설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개막식에는 모교 成樂寅총장, 미대발전위원회 金暎世위원장, 미대 李舜鍾학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술대학은 12월 5~12일 미술대학 전관에서 2014학년도 학사 졸업전을 열었으며, 12월 17~24일 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석·박사 학위청구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불우이웃에 김장 전달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11월 13일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앞마당에서 교직원과 재학생이 함께한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낙성대동,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등 모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됐다.

선배들과 진로 캠프 열어
간호대학

간호대학(학장 朴賢愛)은 지난 10월 31일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2014 간호대학 진로 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모교 간호대학 方京淑부학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현수엽(간호 92-96)과장, 서울아산병원 설미이(간호92-96)간호사, 모교 병원 具泰衡(간호07-13)간호사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香〉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다.
느낌만으로는 모르는 일.
조건만으로도 안 되는 일.
누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일.

결혼해두세요

• 국내지사 서울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전주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창원 • 해외지사 뉴욕 / LA / 뉴질랜드

메듀오
1577-8333



좌로부터 金鍾瑞교육부총장, 金祥薰·朴鍾寓·李鍾協·姜明求·李峻圭교수, 成樂寅총장, 崔度一·韓寅燮교수, 李愚日연구부총장, 金秉文교무처장, 朴魯賢연구처장, 吳貞美연구부처장, 白承學교무부처장

10회 교육상·7회 학술연구상 수여

자연대 李峻圭교수 등 8명 수상

모교는 지난 11월 17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에서 제10회 교육상 및 제7회 학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상 수상자로 물리천문학과 李峻圭(물리67-71)교수, 언론정보학과 姜明求(대학원 78졸)교수, 경영학과 金祥薰(경영84-88)교수, 기계항공공학부 朴鍾寓교수 등 4명이 선정됐다.

학술연구상은 통계학과 李榮祚

(계산통계74-79)교수, 화학생물공학부 李鍾協(화학공학76-80)교수, 법학과 韓寅燮(법학77-82)교수, 식물생산과학부 崔度一(농생물82-86)교수 등 4명이 수상했다.

모교는 2005년부터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해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교수를 선

정해 ‘교육상’을, 2008년부터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에게 ‘학술연구상’을 수여하고 있다.

成樂寅총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가 2014년 QS가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3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오늘 교육상과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는 교수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켜 모교의 소중한 자산으로 귀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원 기숙사 휴게공간 완공

까사미아 李炫九회장에 감사패

모교는 지난 11월 21일 관악캠퍼스 관악학생생활관 918동에서 成樂寅총장, 까사미아 李炫九(대학원08졸)회장, 柳根培기획부총장, 관악학생생활관 金大湧관장과 사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까사미아를 완공 기념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휴게공간인 까사미아를 조성한 李炫九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李炫九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5억원 상당의 가구를 헌물



成樂寅총장, 李炫九 회장

기부해 1999년 개관 이후 오랜 시간 노후했던 대학원 기숙사 918동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왔다.

成樂寅총장은 “李회장님의 귀한 뜻으로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환

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모교의 선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炫九회장은 “후배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쉬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李炫九회장이 설립한 까사미아는 23㎡(7평) 남짓의 인테리어숍에서 토털 인테리어브랜드 기업으로 성장, 가구 및 침구, 리모델링, 호텔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복지시설 가구 기증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張龍鐸회장에 첫 발전공로상

약학대학

약학대학(학장 李奉振)은 지난 1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약개발센터 1층 신폴홀에서 신폴제약 張龍鐸(약학55-61)회장에게 제1회 발전공로상을 수여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약학대학 발전공로상’은 약학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李奉振학장은 환영사에서 “신폴제약 張龍鐸회장은 큰 액수의 기금을 기부하고 제약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신약개발센터 완공에 큰 기여를 해 교수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선정됐



李奉振학장, 張龍鐸회장

다”고 밝혔다.

張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약대 발전기금 및 신약개발센터 기금으로 총 10억원을 출연했으며, 모교 약대와 공동으로 학술상을 제정해 신약개발에 공로가 큰 연구자를 선정·지원하는 등 국내 의약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16개팀 참가...생명과학부 우승

지난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는 제20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가 열렸다.

16개팀 총 4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뮤턴츠팀(사진)이 팽팽한 접전 끝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EBC팀을 10:9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고교동문 간 화합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동문 야구대회는 본회가 지원하고 모교 야구부가 대회 운영을 맡았다.

모교 야구부 趙浚熙(체육교육10입)주장은 “올해 날씨가 금방 추워지면서 참가율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지만 16개팀의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며 “추운 날씨와는 상관없이 모교 동문 여러분의 야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국 특허, 세계 저널 인용률 1위*의
세계적인 공학 학술정보

IEEE Xplore®
Digital Library

Source*: Thomson Reuters Journal Citation Reports 2012
1790 Analytics LLC 2011 (1997-2010 누적)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을 위한
컨소시엄 혜택을 지금 상담해보세요.

The Standard for Standards,
세계 13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Standards &
Digital Library**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두성테크 梁杜錫회장

중앙도서관에 5억원 추가 출연



成樂寅총장, 梁杜錫회장

지난해 모교 중앙도서관에 15억원을 기부한 두성테크 梁杜錫(독문69-76)회장이 5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모교는 지난 11월 10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成樂寅총장과 梁杜錫동문, 李惠日연구부총장, 李哲洙기획처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해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梁동문은 모교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20억원을 쾌척했으며, 신축 도서관에는 양두석홀이 조성될 예정이다.

梁동문은 엔티컬렉션을 설립하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 패션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온 한편 기술 개발을 통해 휴대폰 부품회사인 두성테크를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평소 장애인 재활원 및 양로원 등지의 봉사활동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오고 있다.

음대 故 吳貞珠교수 가족·제자

장학기금 2억5천만원 기부



成총장, 故 吳貞珠교수 아들, 金允貞동문

모교 음악대학 故 吳貞珠교수의 가족과 제자들이 음악대학에 장학기금 2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11월 19일 모교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成樂寅총장, 李哲洙기획처장, 음악대학 金貴賢학장을 비롯해 吳貞珠교수의 아들과 제자동문회 金允貞(기악65-

69)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吳貞珠교수는 모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83년 미국을 방문한 후 제자의 공쿠르 준비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가 KAL기 파격 사건으로 별세했다.

이후 吳교수의 지인들은 제자동문회를 만들어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고인이 생전에 후원했던 자선 의료기관에 공연 수익금을 기부했다. 또 제자동문회와 가족들이 꾸준히 추모 장학금을 출연하는 등 吳교수가 몸담았던 모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려오고 있다.

동양화와 金炳宗교수

1억원 상당 미술작품 기증

모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金炳宗(회화74-81)교수가 지난 11월 25일 모교에 1억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이날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成樂寅총장, 金炳宗교수와 부인 鄭美景씨, 柳根培기획부총장, 李哲洙기획처장, 발전기금 安芝賢기금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쳐온 金교수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벨기에, 영국 등지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대영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등 세계적인 호



金炳宗교수, 成樂寅총장

평을 받아왔으며, 그 공로로 최근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모교는 지난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모교 방문 기념선물로 金교수의 작품 ‘서울대 정문’을 증정하기도 했다. (秀)

제학생의 소리



“세상을 향해 신명나는 마당극 한 판!”

마당극은 풍물, 탈춤 등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하지만 연극보다는 극 구성에 있어 훨씬 자유롭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 외치고 싶은 메시지를 악과 노래, 춤, 연기, 무대장치 등으로 맘껏 방출하는 공연이 바로 동아리 마당패탈의 가장 큰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올해 11월 24일과 25일 총 3번에 걸쳐 올린 43회 정기공연을 합하면 약 80회가 넘는 공연이 탈아(동아리원들)를 가리키는 말)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많지 않은 동아리원끼리 주제 선정부터 대본 작성,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직접 제작하는지라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통쾌한 풍자와 해학으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 40년이 넘게 이 동아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외에도 저희 동아리는 매년 방학마다 탈춤 전수와 풍물 또는 사물 전수를 1~2주간 받으러 떠납니다. 춤은 주로 강령탈춤, 고성 오광대 탈춤을 배우며 악은 웃다리 사물놀이와 우도 풍물을 배우곤 합니다. 사부님께

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탈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것을 보면, 이는 여전히 대학생들의 가슴엔 세상을 향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0~70년대 전국의 대학교에



李知炫(독어교육13입)

마당극 동아리 ‘마당패탈’ 회장

배우는 탈춤과 악은 공연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기에 힘든 연습 과정에도 불구하고 매력, 겨울을 전수관에서 땀 흘리며 보내곤 합니다.

사회에서의 대학생 위치와 역할, 역량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지만 여기 마당패탈에서는 옛 선배들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힘든 일정과 비효율

서 생겨난 많은 탈패, 마당패들이 이제는 ‘그 때 대학생들은 그랬었지...’라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 무대를 흔드는 사물 악기의 소리와 함께 내뿜는 풍자와 해학이 바로 이 사회에서 대학생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탈아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광 고〉

토양을 생각한 고효율·친환경 비료 원료 공급



박명학(영어교육과) (주)신태양물산 회장

1960년대만 하더라도 50%에 달했던 농업인구의 비율은 현재 5% 수준에 불과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노동력으로 최대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과학 영농’은 이제 대한민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주)신태양물산(박명학 회장)은 저투입, 고효율의 친환경 비료 원료 공급을 통한 토양 관리는 물론 영양 관리까지 책임지는 과학 영농의 대표 기업입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박명학 회장은 지난 38년간 꽃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비료 관련 무역업에 종사해오던 중 지난 2001년 신태양물산을 설립해 비료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과학 영농을 통한 양질의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농경지 확보, 고품질 비료, 철저한 토양 관리, 국산 제품 사용, 적절한 농약 및 비료 투입 등이 필요하다. 신태양물산은 농지의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한 후 작물에 가장 알맞은 건강한 비료를 제안해 농작물의 3대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을 알맞게 배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배합한 고기능성 비료 원료는 현재 남해화학, 동부한농, 유니드 등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연간 취급 규모는 농업용 비료 45만 톤과 공업용 비료 25만 톤으로 총 60만~70만 톤에 이른다. 비료 원료 가격이 톤당 400~500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공급액은 4억 달러(약 4200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세계 염화칼륨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칸포텍스’를 비롯해 미국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비료 원료를 국내 독점으로 수입관계를 구축해 국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적하, 운송 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리스크 또한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박명학 회장은 “정직과 신뢰, 직원 상호 간의 협조와 상생을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제품의 품질 체크와 안정적인 공급에 집중해 한국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국내 농업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며 농민들이 흉작에도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고, 자주국방 못지않게 식량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14년 11월 3일자 인터뷰기사』



주신태양물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318호
TEL : 02-555-0062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서비스, 고객의 성공에 헌신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전문기업

이스트원산업개발(주)는
부동산 분양대행, 임대대행, 입주관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미래가치를 추구합니다.

 Consulting & Planning 분양-임대대행 [분양기획, 관리, 마케팅]	 Design & Engineering 개발대행 [인여가, 개발상담, 업체관리]	 Constructing 신략/시공관리 [선정, 계약, 발주, 관리]
---	--	--

E.S.T ONE 이스트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미영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E동 902호 TEL : 02-521-0545 FAX : 02-2055-0545
부산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태웅빌딩 9F TEL : 051-642-6628 FAX : 051-642-6629



E-mail이 Mail이 되었듯 E-book도 Book이 될 세상을 위하여

**1등 전자책 서점
RIDIBOOKS**

www.ridibooks.com



www.lghausys.com

자연, 사람, 공간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기술로 시장을 선도 합니다

당신의 생활공간을 최고로 만드는 LG하우시스의 첨단 기술을 만나보세요

건강채 Z:in -에너지를 절감하는 황호/고단열 유리 -친환경 소재의 벽지/바닥재 -다양한 디자인의 인조대리석/이스톤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 필름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고기능소재 -기능성 가전표면재 -차세대 친환경단열재 -터치 스크린용 고기능점착필름 -목의 디스플레이 광고용 시트	자동차소재부품 -친환경 고내구성 자동차 원단 -고강도 경량화 복합 소재부품 -자동차부품 점착테이프 필름
--	---	---

콩트 릴레이

Viva la Communitas!

李 那 美(의학79-85)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정신과 의사



예일대 철학과 학사,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란 대단한 타이틀과 함께 금의환향할 때만 해도 그녀는 교수 자리가 그녀를 미소로 반겨줄 줄만 알았다. 대학에 다닐 때 한국 교수들의 강의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졸업장을 따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 갔던 사실이 그녀의 발등을 짚을 줄 몰랐던 것이다. 연줄 없이는 이 나라에서 교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만 했어도 어쨌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더 애를 썼을 것이다.

미국 대학의 패컬티로 있는 동안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선 임용이 불가능하다고는 꿈에

이 결국 헛다리만 짚었던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려는 시점이었다. 그런 절박한 마음 한 편에는 사회학 책을 출판하면서 동시에 영어로 된 책도 출판할 수 있다면 한국어건 외국어건 경제학 교수자리에 대한 희망이 여전했었다.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출판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목의 책을 주문했었다. ‘문지 말고 저질러라’라는 도발적인 대중서의 기획이었다. 불평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국여성, 취직이 안 되는 젊은이들,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등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외국에서 공부한 엘리트라는 껍질을 다 떼고 시간강사의 정체성으로 보다 과격하게 한국

고, 하버드대 박사에 이제는 별로 인기도 없어 좋은 필자가 없는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점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공동체를 연구하는 여성사회학자’란 직함으로 여기저기 강연 요청도 많이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다.

그날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과는 다르게 살아라”, “제도권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라”, “뒤집어 사는 젊은이가 왜라”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꽤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헬스클럽에 들러 사우나에 누워 그날 강의의 주제인 ‘이제부터는 다시 소수민중의 사회학이 절실하다’라는 내용 등을 복기하며 쉬는 중이었다.

종교지도자처럼 열렬한 박수를 받는 날도 있었고, 자신에게 빼딱한 시선을 가진 노년과 장년들의 신랄한 코멘트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반응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의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러 온 대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어쨌 이제 는 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게 하는 데 자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의 폭력적인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회가 아닌가.

객관적 사실을 따지며 언쟁을 해봐야 다른 계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늑은 두목을 쫓은 그녀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여두목의 말을 끊고 한마디 할까 싶었지만 여차피 목욕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하버드 출신 여박사는 사우나실을 하릴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혹시라도 여러 권의 책을 써 낸 사회운동가라는 자신의 정체를 누가 알고 목욕탕에서 말쑥을 하는 사진이라도 찍어 올린다면? 당황스러운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얼른 옷을 차려 입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기존의 권위와 싸워 이기자는 논리의 강연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이 흐르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목욕탕에서 하버드건 예일 박사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바로 그 자리를 휘어잡는 조직 장악력이었다.

하버드 출신의 여자가 나가자마자 안에 있던 여자 둘이 의자를 바깥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자신들의 일간 계모임 장소에 낯선 여자가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못마땅한 얼굴들이었다.

사우나 안에서는 하버드 박사가 사라진 다음에도 성토타회가 계속됐다. “도대체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어떻게 여럿이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주제였다. 사우나실에 걸리적거리게 장의자를 갖다 놓은 주인의 ‘원칙 없고 배려 없는 무지’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무릎이 아파 바닥에 꾸그리고 앉았다 일어서지 못해 의자가 꼭 필요한 노인들을 상상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어쨌면 그런 노인들이 자신들의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사고방식을 그녀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었다. 물을 흐려놓으면 회원권의 가치가 떨어질 터이니 말이다. 사우나룸에 의자를 놓고 이용하는 방식 하나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는 누군가가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 대다수가 말없이 따라가는 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인 것이었다.

사우나룸에 장착된 TV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어떤 일에 당황하게 됐는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남았는지 등에 대한 경험담을 주고받는 ‘비정상회담’이란 토크쇼가 흘러 나왔다.

토크쇼를 보던 한 여자가 “우리나라는 民도가 낮아서 안 돼. 촌스럽잖아.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자, 다른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살려면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맨날 불만들만 하잖아.”

나중에 들어온 다른 여자들이 계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불쌍하고 외로운 대통령 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말이야.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좀 따라가 주는 맛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돌아갈 텐데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선진국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

“글쎄 말이야. 예전이 좋았지... 하라고 하면 다 군소리 없이 했잖아? 지금은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정말 걱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리더격의 여자가 만들어진 맛있는 냉커피를 함께 돌려 마시며 나라의 운명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여자들의 편안한 또 하루가 사우나실에서 행복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Viva la Communitas!

“
‘한국의 공동체 어떻게 살릴 것인가’란

다소 딱딱한 제목으로 시놉시스를 작성해

몇 군데 출판사에 보낼 때, 사실 그녀의 사정은

절망적이었다.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출판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목의 책을 주문했었다.

‘문지 말고 저질러라’라는

도발적인 대중서의 기획이었다.”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디자인09-13)

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던 그녀의 희망이 현실과 부딪치며 보기 좋게 부서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연애나 결혼이 잘 풀리지도 않았다. 외국박사를 달고 있는 노처녀라며 부담스럽다는 반응부터 한다는 소리에 화가 나는 것도 나중엔 포기하게 됐다. 나처럼 멋지고 잘난 여자에게 구애할 용감한 남자는 아마 한국에 없는 모양이라는 농담이나 하며 넘어갈밖에.

하지만 포기하고 주저앉을 그녀가 아니었다. 경제적인 도움도 거의 끝나가면서 ‘한국의 공동체 어떻게 살릴 것인가’란 다소 딱딱한 제목으로 시놉시스를 작성해 몇 군데 출판사에 보낼 때, 사실 그녀의 사정은 절망적이었다. 시간강사를 해 봐야 한 달에 백만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에 교통비와 식비를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인생이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이제는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기에 번역가 노릇을 해서라도 먹고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득했었다. 그녀의 이력과 원고를 보고 꽤 유명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자신

사회를 비판하라는 제안이었다.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좀 쓰악한 제목이었다. 자신이 공부한 하버드대의 학풍이 좌파에 가깝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은 솔직히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듯 보여도 엄청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미국사회나, 모두가 서민이라면서 오로지 부자 되기만을 염원하는 한국사회나, 사실 혐오감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플라톤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이 바보 같은 대중들을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진 그녀였기에 대중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정열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대중을 선통하는 책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어쨌면 코미디가 아닐까 하는 냉소적인 마음도 들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며 다수를 위한 교육에 신념을 갖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쨌건, 인세라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써 내려간 대중서는 그러나 생각 외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동 정

수 상

▲李洪九(법학53-57 前국무총리·중앙일보 고문)=지난 12월 3일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旭日大綬章 수훈.

▲金鍾星(건축54임 서울건축 명예대표)=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에서 제1회 한국건축가협회 골드메달 수상.

▲李康煥(법학54-58 前생명보험협회장)=지난 11월 5일 大山 慎鏞虎기념사업회로부터 대산보험대상 수상.

▲金允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문학평론가)

=지난 11월 28일 民世 安在鴻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5회 민세상(학술연구 부문) 수상.

▲崔大權(법학56-61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11월 19일 목촌기념사업회로부터 제8회 牧村법률상 수상.

▲李純炯(의학56-62 모교 기생충학교실 명예교수)=지난 10월 31일 제5회 신흥호월학술상 국제협력부문 특별공로상 수상.

▲李濟薰(사학58-6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지난 11월 5일 고운문화재단으로부터 고운문화상 봉사상(대상) 수상.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2월 13일 '시론'으로 제4회 김준오시학상 수상.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1월 17일 영산법률문화재단으로부터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金東寧(경제64-68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지난 11월 11일 제28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또 20일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언스트앤영으로부터 제8회 EY 최우수 기업가상(마스터상) 수상.

▲李鍾郁(약학67-71 대웅제약 사장)=지난 10월 23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약기술개발대상 수상.

▲崔炳瑞(독문71-75 동덕여대 교수)=최근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제3회 현우 객수일문화경제학상 수상.

▲吳永鎬(화학공학72-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지난 10

월 31일 쿠버에서 한국과 쿠바 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호세마르티 특별상 수상.

▲李建雨(기계공학74-78 모교 공과대학 학장)=지난 10월 26일 홍콩에서 열린 캐드캠 저널 '컴퓨터 지원 설계'(Computer-Aided Design) 편집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공동편집장으로 봉사한 공로로 '엘스비어 명예 편집장상'(Elsevier Editor Emeritus Award) 수상.

▲金根秀(경영77-81 여신금융협회장)=지난 11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동창회 송년회에서 제1회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徐一源(토목공학77-81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수리환경 공학회(IAHR) 정기학술대회에서 Distinguished Member Award 수상.

▲白龍民(의학77-84 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7일 오드리 헬번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오드리 헬번 인도주의상 수상.

▲金雲基(응용미술78-82 동단건축 회장·시인)=지난 11월 29일 시집 '곡부지나며'(발견출판사刊)로 제6회 末堂 徐廷柱 시회 문학상 수상.

▲洪 涉(조선공학78-8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지난 11월 19일 세계 최고 수준의 채광로봇과 채광시스템 통합운용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제8회 장보고 대상 수상.

▲徐敬錫(의학78-84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7일 제2회 대웅의료상-이승규간이식 임상·연구상 수상.

▲文愛理(약학79-83 덕성여대 교수)=지난 10월 23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녹암학술상 수상.

▲車庚會(약학79-83 동국제약 소장)=지난 10월 23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학기술인

상 수상.
▲睦秀炫(불문81-85 모교 규장각 연구교수)=최근 한국 근대미술 1세대 조각가였던 井觀 金復鎭선생을 기려 제정한 김복진상 수상자에 선정.

▲金志玟(화학공학84-88 가천대 교수)=지난 11월 11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로부터 제6회 여성공학인 대상(교육 부문) 수상.

▲曹永福(국문84-88 광운대 교수·문학평론가)=지난 11월 8일 전북 무주군 예제문화관에서 제25회 金煥泰 평론문학상 수상.

▲權石泉(사법85-89 중앙일보 사회2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5일 제25회 고운문화상 시상식에서 고운문화재단으로부터 고운언론인상 수상.

▲오 은(사회02-07 시인)=지난 11월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시 전문 계간지 '시현실'로부터 제15회 박인환문학상 수상.

▲朴舜浩(AMP 43기 세정그룹 회장)=지난 11월 11일 제28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박사목(AMP 55기 희성소재 대표)=지난 11월 13일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朴世俊(AMP 61기 한국암웨이 사장)=지난 11월 15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전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고전략경영자상 수상.

▲朴南圭(AIP 47기 국립과학사 연구원 법공학부장)=지난 11월 4일 경찰청 제6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수사 대상(법과학 부문) 수상.

▲河憲弼(AIP 48기 KIST 물질구조 제어단장)=지난 12월 4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제23회 다산기술상 대상 수상.

▲都昧鉉(AFB 2기 위비스 대표)=지난 11월 11일 제28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www.lignex1.com

LIG Nex1

믿음으로 앞서갑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책임져 온 믿음의 이름, LIG넥스원!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더 믿음직한 내일을 만듭니다.



LIG넥스원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자, 무인시스템 등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희망을 열어가는 중합방위산업체입니다.



▲**고경찬**(AFB 10기 벤텍스 대표)=지난 11월 13일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孫聖淵**(ACPMP 2기 씨앤씨중 합건설 대표)=최근 제1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기술인 부문 대상 수상.

▲**崔幸榮**(GLP 19기 시사월간 경뉴스 대표·발행인)=지난 10월 31일 제49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姜琦珠**(ALP 20기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지난 11월 12일 한국PR협회로부터 올해의 PR인상 수상.

인사

▲**金慶漢**(법학62-66 KH법률연구소 변호사·분회 부회장)=지난 11월 4일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에 선출.

▲**李成俊**(고고인류64-69 前한국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최근 한국 ABC 협회 회장에 선출.

▲**李榮善**(경제66-70 前한국대 총장·코피온 총재)=최근 임기 2년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에 선출.

▲**咸承熙**(법학70-74 前대검 검찰연구관·前국회의원)=지난 11월 14일 강원랜드 사장에 취임.

▲**金重崑**(의학70-76 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최근 임기 1년의 대한소아과학회 제54대 회장에 선출.

▲**崔炳德**(법학72-76 前대전고등법원장·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지난 11월 17일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梁世元**(의학78졸 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최근 대한소아과학회 제16대(2015년 10월~2018년 9월) 이사장에 선출.

▲**權澤秀**(법학74-78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난 11월 5일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安圭里**(의학74-80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30일 대한이식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선임.

▲**金聖根**(화학76-80 모교 자연대학장)=최근 영국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물리화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PPCP(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편집이사회 의장에 선출.

▲**鮮于植**(요업공학76-80 조선내화 전무)=지난 10월 28일 원전해체산업기술연구조합 초대 이사장에 선임.

▲**金圭漢**(의학76-82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최근 대한전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2015년 11월~2016년 10월)

회장에 선출.
▲**金昇煥**(물리77-81 포스텍 교수)=지난 10월 29일 임기 3년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제24대 이사장에 선임.

▲**盧宗善**(전자공학77-81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지난 11월 22일 임기 1년의 한국통신학회 회장에 선출.

▲**文炳俊**(경영77-81 前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경희대 교수)=지난 11월 24일 한국국제경영학회 제28대 회장에 선출.

▲**安英均**(경영78-82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지난 11월 7일 임기 3년의 국제회계사연맹 산하 국제교육기준위원회 위원에 선임.

▲**丁炯先**(영문78-82 연세대 교수·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최근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3대 회장에 선출.

▲**趙相憲**(의학78-84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최근 대한전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2015년 11월~2017년 10월)

이사장에 선출.

▲**吳榮泰**(한대원83졸 前대한교통학회·아주대 교수)=지난 10월 29일 교통안전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취임.

▲**金鎮國**(정치78-85 중앙일보 대기자·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7일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선출.

▲**金起萬**(원자핵공학79-83 국가핵융합연구소 기술연구부장)=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 제4대 소장에 선임.

▲**張元皓**(사회80-84 서울시립대 교수)=지난 11월 7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취임.

▲**具英**(치의학80-86 모교 치주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1일 임기 1년의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회장에 취임.

▲**方文奭**(의학80-86 모교 재활의학교실 교수)=지난 11월 1일 대한재활의학회 제22대 이사장에 취임.

▲**尹鍾圭**(대학원82-85 KB금융지주 부사장)=지난 11월 21일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

▲**趙弘植**(사법82-87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1월 17일 임기 3년의 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선출.

▲**方文新**(경영82-89 SBS 부국장 겸 8시 뉴스 편집부장)=지난 11월 10일 SBS 보도국장에 선임.

▲**金容熙**(ACAD 68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지난 1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

행사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를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李台燮**(화학공학62졸 前과학기술처 장관·한국학생운동자협의 회장)=지난 12월 5일 서울 YWCA에서 제49주년 학생운동자의 밤 행사 개최.

▲**金鎮銅**(국문58-64 前서울경제신문 주필·내일신문 논설고문·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기자 50년 기념 겸 경제時評·칼럼집 '경제 안정한가' 출판기념회 개최.

▲**金仁浩**(행정60-66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관련 제도와 정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전용상담 02-3445-2557)



친절하고 편안한 무료상담
1577-2050
www.noble.co.kr

고품격 노블레스 No.1

전문직/엘리트/상류층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본사(압구정) · 부산지사(해운대 센텀)
미국동부(뉴욕, 플러싱, 맨하탄) · 서부(LA)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수준 높은 이성과의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프로필 안심 보증제-프로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0-18 성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8호

책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지난 11월 13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창설 1백9주년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개최.

▲李泳南(약학64-68 前한국미생물학회장·충북대 명예교수)=지난 10월 25일 수필집 '나의 하늘 정원'(지성의샘) 출간.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빙학회장)=지난 10월 11일 서울 토즈 종로점에서 (사)강원산림포럼과 공동으로 '행복한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와 할빈문화'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全孝澤(자원공학67-71 모교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최근 '환경에서의 중금속 국제학술회의'에 '중금속 기원, 방출 및 조절' 세션의 좌장을 맡

아 논문 발표.

▲徐維憲(의학67-73 한국뇌연구원장)=지난 11월 10일 대구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원 2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權泰信(경제68-72 한국경제연구원장)=지난 11월 21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배당정책 관련 연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金海暎(기약68-72 추계예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11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계예대 라틴스카초빙교수와 함께 연주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0월 28일 6·25참전 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부를 대상으로

'글로벌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중국 실상' 통일안보교육 실시.

▲金貳煥(신대원72-7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지난 11월 20~21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지역·중소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방안 워크숍 개최.

▲廉寶英(기약72-76 서울교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11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아태암예방기구 사무총장)=지난 11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민주평통교육민족화합포럼 회장·관악회 이사)=지난 12월 6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남북관계 개선

을 위한 통일준비 과제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申正秀(기상74-82 前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풍석문화재단 추진위원장)=지난 12월 4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楓石 徐有樂先生 탄신 250주년 기념식 및 풍석문화재단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鄭哲溶(경제78-82 상명대 교수·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지난 11월 12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사물인터넷 시대의 ICT 융합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鄭振鎔(의학78-84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최근 부친 鄭奎澈(의학51-55) 동문을 기리는 사진 1백장을 모아 사진집 '울 아버지'(하루리) 출간.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N 발행인·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1일 서울 인사동 아리랑가든에서 아시아N 창립 3주년 기념 사은의 밤 잔치 개최.

▲徐丘一(의학84-90 모델로피부과 원장)=최근 보톡스 치료의 임상경험을 정리한 '한국형 보툴리눔 치료'(서울의학서적) 출간.

▲朴勤志(기약85-89 피아니스트)=지난 11월 19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전람회의 그림 속으로'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李尙恩(기약93-97 플루티스트)=지난 12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드뷔시, 거슈윈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허상미(기약99-03 바이올리니스트)=지난 11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리사이틀 겨울여행(Winterreise) 개최.

▲김영진(기약00-04 피아니스트)=지난 12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Romantic Story'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유효정(기약00-04 서울바로크합주단원·바이올리니스트)=오는 12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정은지(기약00-04 플루티스트)=지난 12월 6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우달, 바흐, 비도르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 ▲崔愛玉(간호47-50 前모교 교수)=11월 10일 별세(85세)
- ▲朱石淳(수학48-52 前중앙대 교수)=11월 5일 별세(88세)
- ▲金尙享(농학49-52 숙명여대 명예교수)=11월 17일 별세(88세)
- ▲鄭鎬勇(경제52-56 前중앙메이저 부상장)=11월 25일 별세(81세)
- ▲梁承國(약학53-57 前현양상사 근무)=11월 6일 별세(80세)
- ▲元鍾寬(지질과학57졸 前강원대 교수)=11월 10일 별세(79세)
- ▲宋興斌(전기공학58졸 前금성정밀 근무)=12월 1일 별세(85세)
- ▲申光鉉(행정54-58 前경향고속 사장)=11월 10일 별세(79세)
- ▲金周浩(농경제55-59 前농림수산부 장관)=11월 5일 별세(81세)
- ▲朴魯榮(경제55-61 前신한회계법인 회장)=12월 1일 별세(78세)
- ▲池堤根(의학56-62 모교 명예교수)=11월 26일 별세(76세)
- ▲朴鍾國(행정59-61 前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11월 20일 별세(82세)
- ▲張慶天(경영71-75 중앙대 교수)=11월 22일 별세(62세)
- ▲具滋明(정치72-76 LS니코동계련 회장)=11월 26일 별세(62세)
- ▲曹炳喆(사회73-77 前세계일보 주필)=11월 11일 별세(6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medical beauty & health

건강 · 美 · 자신감으로 성공장수

CHEONGVAK

청박병원, 청박메디美, 청박웰에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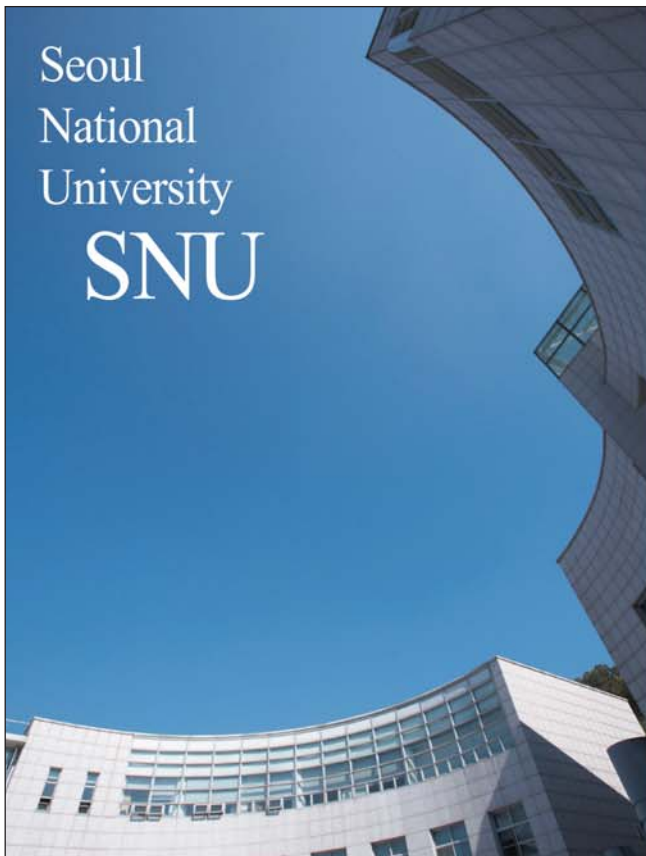
웰에이징센터

여성내분비과 / 미용피부과 / 대사내과

건강을 위한 웰에이징의원 www.wellaging.best

피부미백 / 레이저질성형 / 폐경증후군 / 무기력증 / 대사장애검진-의64266

원장 유 박 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8길 17 청박병원 Tel : 02-545-0131 Fax : 02-545-0130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진일건설 대표이사 김진원(건축학과 68入)



장스여성병원
JANG'S WOMEN'S HOSPITAL

사랑과 믿음이 있는 병원, 휴일이 없는 병원,
장스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약속 합니다.

- + 장스여성병원은 **재왕절개율이 낮은 병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 + 구리장스 여성병원은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병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 + 피부관리, 비만, 보톡스, 노화방지, 지방흡입술, 산후관리



○ 서울장스여성 병원 원장
○ 구리장스여성 의원병원 원장

| 대표전화 | 서울장스여성병원 02-490-4114
구리장스여성의원 031-550-3114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 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경영상 철탑산업훈장 수상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사랑
LOTTE WORLD
ADVENTURE
www.lotteworld.com

Change & Challenge

Creating New Values for Human Beings and Nature

- CS WIND has delivered over 5,410 utility scale towers of high-quality since 2004 to global wind markets and expanded business to supply piles and structural pipe products for oil & gas industry.
- CS WIND is able to produce up to 2,500 towers a year from strategic location of Vietnam, China and Canada with capability of full turn key service.



CS WIND

CS Wind Corporation (Korea HQ)
4F, Baekseok Daehak Building, 129-12 Dongseo-dae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331-978

TEL : 82-41-901-1800 | FAX : 82-41-901-1999 | URL : www.cswindcorp.com



SamPung

품질과 신용의 기업
삼풍특수금속
Sampung Special Steel Co.,Ltd.



스테인리스 자재 전문유통업체
(주)삼풍특수금속은 고객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스테인리스 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종합 스테인리스 유통업체입니다.
고객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공급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30 (문래동4가) TEL. 02)2678-7061~2 FAX. 02)2671-6365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창섭 회장

신 간

파리의 풍경 I ~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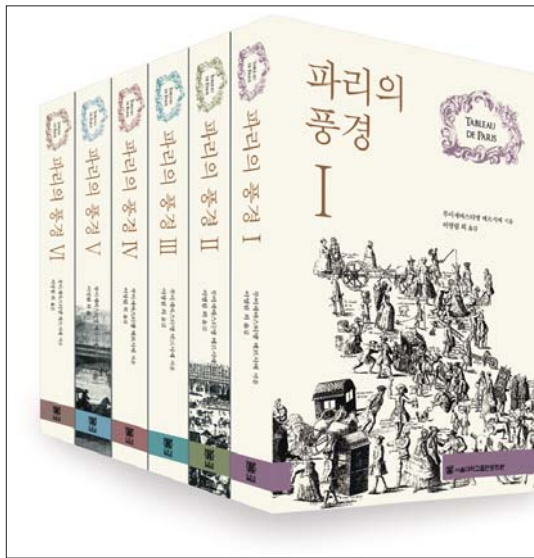
— 李英霖 외 옮김

프랑스 작가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의 ‘Tableau de Paris’를 7명의 연구자들이 번역했다.

이 책의 번역은 모교 서양사학과 崔甲壽(서양사학 72-76)교수, 건국대 예술학부 宋起炯(불문73-77)교수, 모교 불어불문학과 李珪鉉(불문75-79)·張晋煥(불문77-81)강사, 서울여대 사학과 梁希英(서양사학85-89)교수, 수원대 사학과 李英霖교수,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 朱明哲교수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이 책은 18세기 말 파리의 모든 것, 일상생활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회풍속과 관행, 제도와 정치, 도시문제, 직업, 건강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한 관찰 보고서이자 역사서이다.

총 1천5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다양한 판본으로



출판됐으나, 가장 정확한 판본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1789년 판본과 메르퀴르 드 프랑스 출판사에서 발행된 1994년 판본이다. 이 책의 번역은 두 판본을 토대로 이뤄졌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각권34,000원〉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

— 尹在錫 지음



중앙일보 기자,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방송인 尹在錫(화학교육 71-75 본보 논설위원)등

문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주도한 ‘기술 영웅’ 17명을 인터뷰해서 정리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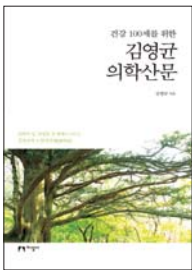
한국엔지니어클럽 창립 40주년을 맞아 고도성장기 각 산업기술 분야의 선두에서 이를 지휘하고 이끈 故 崔亨燮(경성사범39졸)前과기처 장관, 南基棟(경성제대43졸)前대한요업총협회장, 故 馬景錫(화학공학45-48)前호마기술 회장, 吳源哲(화학공학45-48)前청와대 경제 제2수석, 全兢烈(토목공학45-48)유신 회장, 林光洙(기계공학48-52)입광토건 명예 회장, 趙完圭(생물48-52)前모교 총장, 李達雨(전기공학48-53)KC코트렐 회장, 全民濟(대학원 48-50)前인터내셔널 회장, 李昌健(전기공학49-54)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金在官(기계공학56졸)前국립표준연구소장, 李龍兌(물리53-57)퇴계학연구원 이사장 등에 대한 궤적을 담았다. 〈기과광刊·값20,000원〉

건강 100세를 위한

김영균 의학산문

— 金英均 지음

이 책은 우리나라 현대 의학의 기틀을 세운 1세대 의사 金英均(의학43-49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등문이 자기 스스로를 움직이



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지혜와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총 5부로 나누어 전체 4백84쪽지로

돼 있지만 관심 있는 쪽지만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부는 장수와 노화, 2부는 건강장수에 필요한 의학상식, 3부는 저자의 인생과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등장한 치매, 암, 당뇨를 비롯해 영양과 음식, 혈압 등에 관한 정보가 마치 저자와 답소하듯 지루하지 않게 소개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지성사刊·값33,000원〉

어느 날 갑자기

— 金東益 지음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편집국장·사장, 정부 제1장관, 용인송담대 총장 등을 지낸 金東益(법학53-57)등문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대북방송을 꾸준히 들던 인민군의 일선 사단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다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즐거리다. 남행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뇌와 중국을 통해 가족을 미리 탈북시키는 사전준비가 리얼하게 묘사돼 있다. 사단장은 인민공화국에 장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탈을 결단했다. 북한에서의 숨막히는 사상통제와 열악한 보급사정 때문에 부대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실감나게 소개했다.

저자는 북한의 장성택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숙청되는 가상소설을 작년에 펴냈는데, 그 6개월 후에 실제로 장성택이 처형돼 그 소설 ‘서른 살 공화국’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중앙books刊·값12,000원〉

경제대왕 숙종(上·下)

— 鄭冀人 지음



한양대 경영학부 鄭冀人(영문 60-64)명예교수가 경제 역사 대하소설을 펴냈다.

이 책은 초기 자본주의가 도입된 숙종시대의 거시경제자료들을 발굴해서 창작한 것이다.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조국근대화와 경제개발에 몰두해서 경제대국으로 일궈낸 경제대왕이었다.

특히 숙종 뒤에 질패시장에서 무역업을 한 장사꾼 장옥정(장희빈)이 있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녀는 화초처럼 자란 숙종에게 경제마인드를 심어줬으며, 노론의 수구사상을 배척했다. 그 결과 노론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조선은 성장동력이 생겨 이후 영조와 정조가 문에부흥시대를 여는 밑바탕이 됐다. 〈매일경제신문刊·값13,000원〉

인생을 배우다

— 全英愛 지음

괴테 권위자인 모교 독어독문학과 全英愛(독문73졸)교수가 삶의 물음 앞에 선 이들에게 전하는 문학과 인생수업.

한국을 대표하는 독문학자로 40년간 치열하게 연구하며 학생들

공연

설아회 창단 연주회

— 12월 30일 예술의 전당

최근 모교 음악대학 대학원에서 피아노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과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設阿會’(아름다운 것을 베푸는 모임)를 창단했다.

정민정(기악99-03)·정소윤(기악99-03)·홍인경(기악00-04)·윤혜원(기악01-05)·전수진(대학원01-04)·고우리(기악04-08)·김정희(기악05-09)·김보람(기악06-10)동문과 박사과정 중인 이선화·이영주·전지훈 씨 등이 알프레드 슈니트케,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루토슬라브스키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을 가르쳐온 손교수가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삶과 글 사이를 넘나들며 마음에 오간 단상과 삶의 지혜

를 담은 첫 에세이집. 2011년 세계 독문학, 문화 분야의 최고 영예인 ‘괴테 금메달’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며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들어선 저자는 담담하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청림출판刊·값13,800원〉

햇빛 피리소리에

어깨 결고

— 盧柚燮 지음



한국현대 시인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관악지부장 등을 지낸 비전 경영연구소 盧柚燮(국어

교육72-76·경영74-79)대표의 여섯 번째 시집. 이 책에는 ‘플라타너스’, ‘너를 위하여’, ‘장흥에 와서’, ‘인사동에 내리는 눈’, ‘부베이 부베이’ 등 풍경과 생명, 일상과 旅情, 존재의 그리움과 쓸쓸함 등 시인의 다양한 관심사 70여편이 집약돼 있다.

문학평론가 조명제 씨는 작품해설을 통해 “盧시인의 시정과 시적 관점은 정결하고 진솔하다. 어떤 시류에도 휩쓸림이 없이 서정적 경향의 한 正統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시문학사刊·8,000원〉

다음 인간

행복한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

— 李那美 지음

‘다음 인간’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앞으로 나타날 ‘다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하는 책.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자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李那美(의학79-85)원장은



전작들에서 사회와 인간을 밀도 있게 분석해 온 것을 바탕으로 무감동과 타성에 젖은 사람들, 감정이 부족한 R세

대의 출현 등을 예상한다. ‘행복한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는 슈퍼맨을 꿈꾸는 부모에게 들려주는 李원장의 교육처방전.

저자는 조기 교육의 광풍과 함께 자녀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치켜세우는 대한민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시공사刊·값13,000원/이랑刊·14,000원〉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

— 芮秉一 지음



서울방송(SBS), 조선일보 기사를 역임한 플루토미디어 芮秉一(정치84-88)대표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가 참여하는 공존과 공동의 정치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참여’에 친숙해지고 정치 커뮤니티와 정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정치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해 공존하는 모습을 한국에서 현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적고 있다. 〈21세기북스刊·값15,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10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8. 20~11. 23) · 일반 (2014. 8. 20~11. 23)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崔斗衡= 1백만원
△부회장 李世中= 1백만원
△부회장 鄭然世= 1백만원
△부회장 鄭世煜= 1백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孫炳斗= 1백만원
△부회장 辛鉉雄= 1백만원
△부회장 崔鍾聚= 1백만원
△부회장 趙允旋= 1백만원

관 악 회

△이사 權永昊= 30만원

상임이사

△崔明珍 생활대동창회장= 20만원
△裴吉漢 보대원동창회장= 20만원
△朴英淑 CHCN동창회장= 20만원
△姜英植 FIP동창회장= 20만원
△禹晋夏 ANM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영길 ASP23
△김명린 공대61 △김성호 사대70
△김우진 음대73 △김태형 공대94
△박경열 SPAR20 △이춘길 공대77
△장정현 사대78 △장진호 공대72
△정하연 미대82 △지두환 인문73
△최인상 법대89

(일반) △강영구 AFP8
△강월광 자연10 △강희양 보대원62
△고병수 공대70 △곽중훈 SPAR25
△곽효성 약대63 △권영환 사대59
△김 호 사회대76 △김도윤 SPAR25
△김동은 농대99 △김득수 SPAR25
△김명희 의대89 △김병문 자연75
△김병일 ABKI4 △김삼수 의대49
△김선기 사회대82 △김성돈 공대98
△김수환 공대69 △김수희 법대원09
△김영성 SPAR25 △김영식 FNP4
△김용빈 인문대87 △김유창 공대87
△김윤배 자연81 △김일현 음대79
△김정환 사회대03 △김종성 대학원81
△김나현 SPAR25 △김한일 APC20
△김호진 SPAR25 △김화현 미대98
△남동희 음대96 △남영찬 법대77
△도종수 사대91 △동상권 공대03
△류택형 법대49 △박경진 치대63
△박동균 의대84 △박성우 AIP32
△박인성 치대98 △박현경 의대07
△배양호 SPAR25 △배주호 AIP43
△백승구 GLP28 △서정민 의대82
△성승규 수의대89 △손필현 자연00
△송재용 공대89 △신동령 경영73
△신동복 약대83 △신승준 ALP20

△신정인 공대07 △신진규 AIC36
△심성보 자연10 △심은주 미대05
△안상규 치대59 △오만영 FNP1
△오재화 공대64 △윤정민 약대51
△윤혜순 학대원10 △이건수 AIC35
△이경미 음대81 △이경배 법대59
△이귀중 공대79 △이동한 공대58
△이미자 간호89 △이봉주 SPAR25
△이상우 인문82 △이승훈 경영04
△이영남 약대64 △이영재 의대80
△이영주 문리60 △이일교 FNP4
△이정우 공대65 △이정훈 SPAR25
△이종일 음대77 △이현재 사대57
△이희재 의대99 △임재훈 의대66
△장경석 SPAR25 △장석산 ALP9
△전병중 사회09 △정경천 의대87
△정규성 MBA08 △정다운 치대11
△정승태 AMP27 △정재욱 미대99
△조남식 AWAS1 △조명희 생활67
△조재성 SPAR25 △차영민 치대90
△최남국 ASP16 △최영록 SPAR25
△최한구 자연82 △탁형엽 공대92
△현준섭 의대99 △홍성협 공대55
△황병남 치대70

이 사

◆인문대 △김덕수83 △김원한81
△류규현91 △박종덕74 △손정현84
△오세구72 △유기홍77 △이양재75
◆사회대 △고영일84 △김경용91
△김기령75 △김영섭81 △김찬동84
△김현성88 △김희원89 △박민식84
△배지우87 △이계성77 △이원백84
△이준우92 △임 철75 △임주현79
△전승철81 △최완근81 △홍승원82
◆자연대 △민영철74 △박윤경83
△양병룡74 △이 식85 △이용학74
△이종섭73 △임완중87
◆간호대 △곽윤희74 △남은숙75
△이순임75
◆경영대 △권기출72 △김선구73
△김종훈86 △김홍준76 △박용환72
△박종완71 △서동규84 △최대봉88
◆공대 △강장렬79 △구본현73
△권용수81 △권정태84 △김덕우81
△김덕재54 △김선복62 △김성태53
△김정선81 △김종술66 △김종열78
△김태환66 △김호수63 △남일순81
△박두근53 △박영복63 △부준홍74
△부창렬77 △서영수86 △서정만64
△송준환62 △심이택57 △안용수73
△양준모85 △양화섭78 △이건우74
△이경재81 △이국노80 △이연주93
△이종우86 △이종훈55 △이홍원66
△정재영70 △정형수59 △주기태69
△최상민64 △하태흠75 △한영철69
△허대기71 △홍민표74 △황규백93
◆농대 △강경하74 △강원봉77
△권오진52 △김상호56 △김상환88
△김훈동63 △남현석81 △명을재83
△목세균63 △문양수82 △박순흥85

△서기호60 △서성원93 △송기철74
△원종영62 △유부열66 △윤경섭55
△윤성원72 △이건일60 △임진득74
△하영주83
◆문리대 △구봉희62 △권민웅62
△권혁방65 △김상하45 △김성중61
△김찬근69 △김하진58 △김홍철60
△노영식74 △류성희61 △류종택56
△박하진67 △송대성69 △오종발68
△유정열52 △이상근55 △이상원71
△이영훈64 △이종한62 △정태철55
◆미대 △김제웅60 △김종선74
△성기점58 △손은신82 △장채일78
△한진성77
◆법대 △권순민89 △김 숙69
△김 훈85 △김석영51 △김석재88
△김신태57 △김인겸82 △박상일77
△박윤흔55 △박종태84 △박태훈66
△배성진89 △서복현76 △송경숙91
△송재양77 △송진현71 △신영수70
△신정철52 △심우찬02 △우병우84
△유종해50 △윤경희65 △이동준59

△이세형68 △이재근82 △이충범78
△장정우89 △정해방69 △정호영66
△황선태66
◆사대 △강경돈70 △김경애74
△김기광64 △김승재71 △김중훈79
△노갑기66 △노재영91 △민무일65
△민진호87 △박남기50 △박대영80
△박병익74 △박세원70 △박형준60
△박홍일60 △승만호76 △신용래52
△오창훈83 △원혜영71 △유경근58
△이동호59 △이명희79 △이오봉61
△이재혁63 △이정식72 △이호준60
△임길선83 △정운궁71 △정인형65
△채미영82 △최돈형68 △최태상53
△함오연67 △형남규67
◆상대 △구용서60 △김영식66
△김종호54 △김태겸70 △박병준51
△박상은55 △박성석61 △송병락59
△신양우70 △이광수50 △이남수62
△이용휘57 △이항철54 △장윤문65
△조문규57 △최기동70
◆생활대 △류국영84 △조정에57

◆수의대 △김윤수74 △김창수64
△남기용74 △오효성77 △이금주83
△이진수71 △장광호75
◆약대 △김영길61 △남승국70
△백성기59 △오성환60 △윤여표76
△윤웅찬68 △이강현75 △조용현74
△주승재86
◆음대 △김숙이73 △김순화70
△박정욱78 △송지윤84 △이유희68
△이준복68 △최영택74
◆의대 △고건성67 △김동진68
△박창학71 △백태진74 △김경만80
△전형식81 △정두용73 △정영덕70
△정용인68 △정필현82 △최혜령03
◆치대 △김명효75 △김형욱82
△변석두63 △송명욱86 △신정훈65
△양수정83 △양일수73 △양재희75
△우원희73 △이영대70 △이재봉70
△이종호79 △이창우91 △이호정86
△조형작64 △최양근81 △한성희92
△황의강61
◆대학원 △강우식83 △김경남84
△문두길87 △박동준80 △박명호76
△우은주78 △이범수85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덕성71 △문성환95
◆신대원 △안병찬71 △이근수67
◆행대원 △김영화68
◆환대원 △최강림90
◆AMP △김세래46 △김영섭75
△김택동68 △사재훈74 △서상노73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입)02-799-7979

△신명철⑧ △양성욱① △유재천③
△이상주⑦⑩ △이재환④⑧ △이정식⑬
△이정훈⑤④ △정건택②① △조성명⑦⑤
◆AIP △고순관④⑦ △김정만④①
△문규원⑩ △박한창①⑦ △신현필⑬
△유영완①⑦ △이두평⑧ △이충언⑭
△정방언④⑧ △최용길②② △홍성철③④
◆ACAD △권도중④⑨ △서정만⑬⑧
△신은우⑤⑥ △안희수⑪ △유용근③⑧
△유현규⑦④ △이상영④⑩ △이종식⑦③
◆ABP △김선제⑨ △이재호④⑩
△허 영⑭
◆SGS △김권욱⑬ △김두철③
△송두영②② △이강웅②③ △이상포②③
△정해수⑤⑤ △황용연②②
◆APC △강대가④④ △김경수⑩⑩
△양종대⑤⑤ △정현종⑨⑨
◆HPM △김재중②② △박보경②③
△성지용④④ △엄금량⑭⑭
◆AMPP △엄재구⑥⑥ △이경재⑥⑥
△하영수②②
◆AIC △김정구③③ △남호연④④
△류진국①① △서 훈②③ △신철화②②
◆AFB △이원기⑭⑭ △정성모③③
◆AMPFRI △김정훈①① △박용철④④
△유승배②② △이병윤②⑥ △최호식③③
◆ACPM △이경범⑨⑨ △이신재⑨⑨
◆FIP △서덕화②② △이부일②②
◆GLP △김강호④④ △김종길⑬⑬
△김태환②⑦ △마명욱②③ △박동하②⑦
△박삼수②④ △이상복②⑤ △이승규⑤⑤
△이효승②⑥ △이희명②⑥ △임채룡②⑥
△장수연②② △허수진⑭⑭
◆ANMP △엄옥봉①①
◆SPARC △이세형①⑦ △이수원⑤⑤
◆ASP △문병철⑪⑪ △이상용②③
△조성목②③
◆IFP △백종화②② △주복식③③
△최명수②②
◆BCP △김원부⑧⑧

일 반

◆인문대 △강기훈⑩ △고병철⑥⑥
△구상본⑦⑧ △김세희⑩⑩ △김신한⑧⑨
△남창경⑧① △민유진⑩⑩ △박영진⑧⑧
△방문규⑧① △양혜진⑩② △오은환⑦⑦
△유성원⑧⑥ △윤나경⑥⑥ △윤희상⑩③
△이광성⑩③ △이나형⑩⑨ △이동웅⑦⑦
△이우열④④ △이재환⑧② △이주현⑨⑨
△이현정⑩③ △전병구⑧④ △정용환⑨②
△조연수⑧⑨ △주인규⑥⑥ △현대정⑩⑨
△홍영호⑦⑤ △홍인기⑦⑦
◆사회대 △강성철⑧⑨ △권용발⑦④
△권준성⑨② △김계수⑧① △김규영⑧④
△김민선⑩⑩ △김세준⑩③ △김수지⑩⑨
△김승기⑥⑨ △김원주⑩⑩ △김정환⑩⑨
△김창선⑧④ △김철수⑦② △김현민⑩⑩
△도종윤⑨⑦ △민명기⑥⑥ △박상훈⑧⑦
△박세정⑩⑩ △박소영⑩⑩ △박정환⑦⑦
△박희대⑪⑪ △배준호⑩③ △송지연⑩③
△양소은⑩③ △윤민수④④ △윤성식⑩⑤
△이선아⑨⑦ △이철아⑩③ △이수경⑩⑨
△이윤섭⑧④ △이종권⑦④ △임종희⑩⑤
△임지영⑩⑨ △장재민⑦⑦ △정훈승⑨②
△조 민⑩⑩ △진현정⑩⑧ △차경민⑩②
△최재혁⑧⑨ △최종완⑩⑩ △최호승⑨⑦
△한재연⑧④ △함보현⑨⑤
◆자연대 △강문기⑥⑧ △고영미⑧③
△김미현④④ △김민아⑦⑦ △김민영⑩⑨
△김민주⑪⑪ △김승곤⑧⑥ △김영학⑧①

△김용환⑦④ △김주훈⑩② △김진규⑦⑧
△노주현⑧③ △박영조⑩⑤ △박종환⑩⑧
△박지훈⑩⑧ △배근택⑧④ △백경렬⑭⑭
△신용일⑩⑤ △심은영⑩⑤ △양중섭⑧③
△오장률⑩⑤ △유해경⑦⑦ △윤진명⑩⑩
△이병철⑩② △이상윤⑩⑨ △이상휘⑩③
△이성민⑩⑩ △이예슬⑪⑪ △이인기⑦⑦
△이한이⑧⑦ △임경수⑩⑥ △임병호⑩⑤
△임호빈⑩⑩ △장민성⑦⑦ △전 솔⑩⑩
△전용호⑦⑤ △조기혁⑩③ △최나라⑩⑧
△최선영⑩⑨ △최윤경⑩⑥ △최태혁⑩⑩
△최효영⑪⑪ △한대현⑩⑨
◆간호대 △김유경⑩⑨ △남선화⑩⑨
△박정호⑤③ △방활란⑧① △이진솔⑩⑨
△장명석⑩⑩ △정혜선⑦⑦ △채소라⑩③
△최수정⑩⑩ △최지선⑩⑨ △황애영⑥⑥
◆경영대 △권상호⑨⑦ △김관수⑩③
△김동희⑧⑧ △류 열⑦⑦ △오윤근⑩⑥
△우정원⑦⑦ △유수연⑩⑩ △이나래⑩⑥
△이상우⑦⑦ △이철재⑧③ △이충호⑩⑩
△이형진⑩⑦ △임성규⑦⑦ △임지은⑭⑭
△장세연⑩⑩ △정문철⑧⑦ △최우혁⑩⑥
△하지현⑦⑦ △한상용⑦⑦
◆공대 △강경민⑩⑩ △강수민⑩④
△강승관⑩⑩ △강응순⑦⑦ △강이석⑦⑦
△고승규⑦⑦ △공석봉⑤⑤ △곽병근⑥⑥
△권남석⑩③ △권영하⑥④ △권오동⑥⑨
△김 영⑤⑤ △김갑환⑦③ △김경은⑩⑤
△김동규⑤⑧ △김동원⑩⑤ △김민철⑨⑦
△김석준⑥⑨ △김성철⑧⑧ △김성태⑤⑤
△김수광⑤⑦ △김신추⑪⑪ △김인선⑥⑤
△김인영⑦② △김일두⑩⑥ △김일우⑦⑦
△김일형⑦⑤ △김재열⑩⑨ △김재환⑤④
△김정근⑥⑥ △김정웅⑥⑥ △김정제⑥⑥
△김정현⑭⑭ △김종훈⑩③ △김주혁⑩⑩
△김주호⑤② △김준학⑩⑩ △김전주⑤⑦
△김충섭⑥⑤ △김충은⑩⑨ △김택중⑤⑥
△김풍오⑥⑧ △김필한⑤③ △김학기⑤⑤
△김형진⑩③ △김형태⑤⑦ △노오현⑥③
△마준경⑤④ △명동일④④ △문제춘⑦⑦
△박노열⑩⑥ △박상언⑩⑨ △박상우⑩⑩
△박선영⑩⑨ △박용수⑥⑦ △박용철⑤⑤
△박용택⑥③ △박원춘⑦⑥ △박정우⑧③
△박종규⑥⑧ △박종식⑦⑦ △박종철⑩⑥
△박지형⑩③ △박청수⑩⑨ △박혁준⑩⑩
△박형호⑤④ △백계현⑩⑩ △백봉근⑤⑤
△변문현⑤③ △변세종⑩③ △서동완⑭⑭
△서병은⑤⑧ △서승범⑩⑨ △서인원⑤②
△성 현⑩⑤ △손승완⑩③ △송규동⑧⑤
△송재규⑤⑤ △송철상⑥⑥ △송희국⑤⑤
△신원동⑧⑤ △심규대⑩⑤ △심혜원⑩⑨
△안상규⑧⑤ △안소담⑭⑭ △안종린⑧⑩
△양승훈⑩⑤ △엄세나④④ △오 훈⑩⑤
△오재환⑧④ △오창훈⑩⑥ △오효석⑦④
△우명제⑩⑩ △원상현⑩⑤ △원종호⑩⑧
△유건환⑤⑥ △유제호⑦⑨ △유태근④④
△유현우⑩⑩ △유현준⑩⑩ △유홍식⑤③
△윤엽선⑦② △윤용섭⑧⑥ △윤재호⑦④
△이갑훈⑧② △이거송⑦⑦ △이광우⑥⑥
△이기성⑤③ △이기수⑩⑨ △이민정⑦⑦
△이민중⑦⑨ △이성주⑧③ △이성철⑥⑥
△이수현⑩⑤ △이승훈⑩⑧ △이용욱⑩⑨
△이유진⑩⑩ △이윤빈⑩② △이용직⑤⑤
△이일환⑤⑤ △이재학⑤④ △이재환⑩⑥
△이종현⑧⑥ △이진형⑦⑦ △이진호⑧⑩
△이체관⑦⑦ △이호선⑨① △임동진⑭⑭
△임혜숙⑩⑧ △장원상⑩⑩ △전광환⑥⑥
△정민철⑩③ △정병호⑩⑤ △정승교⑦⑦
△정원배⑤⑨ △정을호⑥⑧ △정찬기⑩⑩
△정해결⑥⑨ △정해철⑤⑨ △정호상⑤⑨
△조남철⑥② △조문형⑩⑥ △조용재⑤⑤

△조재훈⑩⑧ △차덕용⑩⑦ △천성대⑥⑥
△최권호⑤⑦ △최근준⑩⑩ △최우영⑩⑧
△최의원⑤④ △최정림⑤③ △최진혁⑧⑤
△하태광⑧④ △한건우⑤⑤ △한다빈⑩⑩
△한상연④④ △한창희⑥⑥ △현창호⑩⑤
△홍중우⑤③ △홍진채⑩⑩ △황영문⑤③
△황재광⑤⑦ △황종열⑥⑨
◆농대 △강석훈⑧④ △강용신⑤④
△강정일⑥④ △강창식⑤⑥ △고장원⑤⑤
△곽 현⑧⑧ △구외석⑧④ △권인규⑨④
△김 현⑤⑧ △김관우⑧③ △김교홍⑤②
△김명호⑦⑦ △김민규④④ △김상후⑥④
△김성우⑩③ △김영각④⑨ △김영택⑤⑤
△김의도⑧⑦ △김정웅⑤⑥ △김진배⑦③
△김진태⑦⑤ △김현성⑦⑦ △김휘천⑥③
△나용준⑤③ △마종선⑧② △문규해⑤⑥
△민재훈⑦⑦ △박봉현⑥⑧ △박용제⑥⑦
△박정근⑥③ △박정택⑤⑤ △배대환④⑧
△배진호⑦⑦ △백생구⑤⑦ △서훈희⑩⑩
△석창건⑩⑩ △성우경⑤⑤ △소혜연⑩⑩
△손정일⑧⑤ △송환창④⑥ △신건성⑥②
△신동현⑩⑧ △신혜영⑩⑥ △심의구⑤⑤
△안화섭⑥⑥ △양국현⑩⑥ △양기웅⑩③
△양기태⑥⑥ △양동섭⑩⑨ △오동환⑧④
△오봉국④⑤ △오완수⑤⑤ △오윤진⑤⑥
△유원길⑥③ △유지성⑤⑨ △유지풍⑤④
△윤재웅⑩⑨ △윤창원⑥⑦ △이광현⑤④
△이규형⑤⑤ △이기호⑦⑧ △이길상⑩⑥
△이민재⑤⑦ △이병훈⑤⑧ △이순혁⑤⑨
△이양섭⑦② △이영호⑥⑧ △이익수⑦⑦
△이재경⑩⑧ △이재성⑤⑥ △이전학⑥⑥
△이종민⑧③ △이종수⑧② △이종택⑥⑦
△이준교⑧⑦ △이해문⑦⑦ △이형익⑥④
△이희진⑩③ △임정선⑩⑨ △장성중⑤⑧
△전우방⑤⑤ △전종갑⑦② △정규희⑤⑨
△정선자⑥② △정한수⑧② △정환철⑨④
△조비환⑤⑧ △조안부⑤⑤ △채정석⑦⑧
△최균용⑦④ △하창호⑩② △한광희⑤⑤
△한성식⑤⑧ △한재휘⑦⑦ △한휘석⑤⑦
△홍석인⑤⑦ △황도연⑭⑭
◆문리대 △강신성⑥⑤ △강신표⑤⑤
△강영주⑥③ △강일규⑤③ △김 윤⑥⑥
△김 인⑤⑨ △김동진⑥③ △김민욱⑤⑨
△김무창⑥⑥ △김병상⑥⑤ △김병영⑤⑧
△김상철⑥② △김수춘⑤④ △김영소⑥⑥
△김영식⑥④ △김용태⑤③ △김윤식⑤⑤
△김인철⑥⑥ △김종섭⑤⑤ △김종수⑥②
△김형배⑥⑦ △류민성⑥④ △박대영⑥⑥
△박옥순⑤⑨ △박찬범⑥② △서지원⑦⑦
△송병찬⑤⑨ △송한오⑤⑧ △양승영⑤⑦
△오행조⑥⑥ △유광준⑦⑦ △유희형⑥⑥
△윤병태⑤⑥ △윤영식⑤④ △윤용식⑤⑨
△이건원⑥③ △이동남⑦⑦ △이영주⑥⑥
△이우봉⑥⑨ △이우현⑥⑥ △이인수⑥③
△이정세⑤② △이정수⑥④ △이종혁⑤⑤
△이춘기⑤④ △이태년④⑥ △인윤섭⑤⑦
△임형두⑤⑦ △장내식⑥⑤ △정관철⑤⑨
△정해일⑤⑧ △조희근⑦⑦ △최순봉⑤⑤
△최흥기④⑧ △추국엽⑥② △황영선⑤⑧
◆미대 △강태성④⑨ △김민지⑩⑩
△김병욱④⑧ △김재형⑩② △김지열⑤⑥
△김지희⑤⑨ △박은우⑩⑨ △신화정⑧⑨
△오지은⑩③ △원모희⑤⑨ △윤현경⑧⑥
△이운식⑤⑥ △이지인⑩⑩ △임명욱⑧①
△정정자⑥⑥ △정평숙⑤④ △최숙경⑤⑨
◆법대 △고재화⑥② △곽정출⑤⑦
△권기대⑤⑤ △김규연⑥⑥ △김기남⑩②
△김기전⑤⑨ △김기현⑤⑦ △김다솜⑦⑦
△김민영⑩② △김보섭⑧① △김상구⑤⑤
△김상태⑥⑥ △김선아⑩⑩ △김성배⑦③

△김승식⑤② △김용섭⑥③ △김재기⑥⑧
△김종수⑧④ △김진홍⑤⑦ △김혜수⑦⑦
△김호윤⑦③ △류체령⑩⑥ △류택형④⑨
△문용선⑦⑥ △민동섭⑩⑥ △박병연⑥⑦
△박세철⑤⑤ △박세현⑩③ △박종성⑦③
△박진수⑩⑧ △성창익⑧⑧ △소철룡⑥⑧
△신근식⑥③ △신수길⑦⑦ △신진민⑥⑥
△안의환④② △여정구⑦④ △염정훈④⑨
△우영진⑤② △원윤목⑤⑤ △유효봉⑥⑥
△윤우정⑥⑥ △이근윤⑦⑥ △이상호⑧⑤
△이재덕⑧② △이주성⑦⑥ △이춘식⑤②
△이태식⑤⑦ △이필관⑩⑨ △장지용⑨⑦
△전원배⑦② △전주혜⑧⑤ △전하은⑦④
△정다위⑩⑩ △정원진⑧⑧ △정재형⑤⑧
△정재훈⑩⑨ △조경래⑤⑤ △조남현⑤④
△조병직④⑥ △주용완⑧⑨ △한영광⑥③
△현옥순⑤⑤ △황재성⑥④
◆사대 △강대길⑧⑦ △공주렬⑤⑦
△구도훈⑩⑩ △권오현⑦⑦ △김경렬⑤⑧
△김경수⑤⑨ △김관섭⑦⑨ △김규형⑤④
△김명자④⑤ △김부환⑦⑨ △김상철⑥⑧
△김세철⑦③ △김수신⑥⑥ △김순신⑤⑤
△김은숙⑤⑤ △김은과⑥⑥ △김인재⑦⑦
△김재철⑦⑦ △김정연⑩⑨ △김정희⑧④
△김철교⑥⑧ △김필수⑤⑦ △나청운⑤⑧
△남우선④④ △노두호⑤⑤ △류주현⑩⑨
△문정대⑤③ △박대규⑤⑦ △박동근⑥②
△박동원⑤⑧ △박보기⑥⑥ △박원선⑤⑧
△박재근⑦⑨ △박점남⑧③ △박정용⑧④
△박종대⑤⑤ △박지수⑪⑪ △박지영⑦⑦
△박창만⑥⑤ △백성준⑦⑧ △백수관⑧①
△변희준⑤⑧ △서리화⑧⑥ △석종복⑦②
△석중현⑧④ △성현경⑩③ △손경해⑤⑦
△손나철④⑨ △송다은⑩⑩ △송선영⑩⑩
△신석환⑤⑦ △신정숙⑥⑦ △양세영⑦⑦
△여병구⑧① △오연옥⑩⑨ △오종식⑤⑦
△유석렬⑤⑧ △유성렬⑦④ △유효숙⑤⑤
△윤기승⑦② △윤기호⑩③ △윤용섭⑧⑩
△이강인⑦⑦ △이동민⑩⑩ △이병렬⑥⑤
△이영윤⑤⑧ △이영자⑥⑥ △이예진⑩⑩
△이원희⑥⑨ △이은혁⑩③ △이종락⑤⑧
△이진호⑧⑤ △이춘산⑩⑥ △이태준④⑧
△이현순⑤③ △이현영⑤⑥ △이혜진⑩⑥
△장도진⑩⑩ △정경자⑧⑨ △정광석⑨④
△정광윤⑩③ △정동화⑤③ △정명진④⑦
△정성환⑨⑦ △정영숙⑤⑧ △정차순⑤⑤
△정풍호⑥⑥ △정현재⑩⑨ △정혜진⑩⑧
△재목례③③ △조병완⑤③ △천석현⑤⑤
△최수연⑥⑨ △최연수⑪⑪ △최영준⑥⑥
△최현실⑧⑦ △최홍기⑦③ △한공우⑤③
△한나숙④⑤ △한인영⑩③ △한재란⑩③
△하은순⑧⑥ △홍학수⑤③ △황권오⑦⑦
△황능하⑤⑤ △황정규⑤⑦
◆상대 △강희봉⑤⑥ △고봉상⑦⑦
△곽영홍⑤⑦ △권혁조⑤③ △권혁태④⑨
△김경모⑤⑥ △김기현⑥⑥ △김동엽⑥②
△김무양⑥③ △김성탁④⑥ △김용민⑦⑦
△김용일⑥⑧ △김재오⑦⑦ △김종창⑤⑤
△김형철⑥⑨ △노병태⑥⑥ △배상전⑤⑦
△배종규⑤⑦ △배진성⑤⑧ △백찬욱④⑧
△서강무⑤⑧ △심정수⑥③ △안병택⑦⑦
△안익수⑤③ △엄치섭⑤③ △유춘상⑤④
△유혜수⑥⑦ △윤록현⑤⑨ △윤하균⑤⑤
△이기주④⑥ △이동재⑤④ △이병서⑤⑥
△이승로④⑨ △이영서⑥⑥ △이정권⑤⑦
△이호철⑤⑦ △장동수⑤⑧ △정덕화⑤⑥
△정종찬⑦⑦ △한장식⑥⑥ △한철수⑥②
◆생활대 △강창자⑤⑦ △김순오⑤⑤
△김연지⑩③ △김영웅⑩③ △김예지⑩③
△김옥순⑤⑦ △김혜숙⑦② △남기숙⑤⑦
△맹은숙⑧⑥ △양정숙⑩③ △이지수⑩⑩

△임정빈⑤⑦ △조은희⑦⑥ △최소연⑩⑨
△최재영⑦⑦
◆수의대 △강영훈⑧④ △김경휘⑤⑥
△김민영⑤⑩ △김용백⑧⑥ △김준삼⑤⑤
△김홍욱⑥④ △문선창⑥⑤ △박선규⑥⑥
△서광원⑧⑤ △송기홍⑥⑥ △오남진⑥⑦
△유병문⑥⑦ △이강훈⑤⑤ △이경환⑥⑥
△이성호⑤⑧ △조기형④⑨ △조병기⑧⑦
△주찬용⑥③ △최홍렬⑥⑥
◆약대 △고건일⑥⑥ △김옥란⑤⑤
△박혜량⑩⑨ △송나라⑩⑤ △신광수④⑦
△염정현⑩③ △이상실⑤⑤ △이상준⑥⑥
△이우영⑦⑦ △이진희⑩② △이해빈⑤⑧
△임정은⑦⑥ △정구충⑥⑦ △정근배⑥⑥
△정숙기⑤④ △정원장⑤⑤ △조해숙⑤④
△채영주⑤② △최수안⑩④ △하성상⑤⑧
△한진호⑤⑨ △홍우일⑥⑥
◆음대 △강신애⑩⑥ △곽지향⑩⑩
△김재미⑧④ △남은정⑩② △노선형⑩⑨
△유혜림⑩⑨ △이종찬⑩⑩ △정상열⑧①
△주나영⑩⑩ △주인혜⑩⑩
◆의대 △강준희⑩⑨ △권영표④③
△김 윤⑥② △김병학⑥⑧ △김진희⑩③
△김철규⑤⑧ △라환도⑦⑦ △박선재⑤②
△서재성⑧⑧ △성민용⑩⑩ △송민준⑤⑦
△신상만⑥⑥ △안문성⑦⑧ △오정성⑥⑦
△유근식⑩⑨ △유상현⑩⑩ △유창윤⑩⑩
△윤기욱⑩⑤ △윤세희⑥⑧ △윤용구⑥⑥
△윤용수⑥⑤ △은 용⑩⑨ △이근후⑦⑦
△이방제⑤⑦ △이상완⑤⑤ △이선용⑤⑥
△이수연⑪⑪ △이승준⑩③ △이정균⑤⑥
△이종석⑩⑩ △이지혁⑩⑤ △이희발⑤⑨
△임경환⑩⑩ △임용오⑤⑦ △정성원⑩⑩
△정진섭⑩⑩ △정현석⑩⑨ △조진규④⑥
△최승호⑩③ △하은주⑦⑨ △황소연⑩⑥
◆자유전공 △구보효⑩⑩ △김수민⑩⑩
△양주형⑩⑨ △유영상⑩⑨ △이영우⑩⑩
△조동우⑪⑪
◆치대 △김명수⑥⑥ △김민수⑤⑥
△김영호⑤⑦ △김익현⑦⑧ △김현순⑦④
△남상범⑧③ △명동성⑥⑥ △박승오⑥②
△박재용⑩⑧ △성철제⑥③ △우재은⑤⑨
△유병현⑦⑦ △윤명국⑤⑨ △이민선⑥⑥
△이인경⑧② △이종재⑧② △이창엽⑧⑨
△주성원⑩⑩ △차봉익⑥⑨ △최승은⑥③
△최형화⑤⑤ △한광현⑥⑧ △한기완⑥⑦
◆대학원 △구자전⑥④ △김정권⑦⑨
△신병석⑧⑨ △이정길⑥③ △함성일⑩②
△하찬수⑦②
◆MBA △고인준⑪⑪ △오혜연⑪⑪
△정병갑⑭⑭ △황성민⑩⑩
◆경대원 △장대길⑥⑧
◆교대원 △김범기⑦⑦ △김충기⑥④
△이상길⑦⑦
◆법대원 △양재현⑪⑪
◆보대원 △선병관⑩⑧ △이선영⑩⑨
△조준국⑧④ △한은숙⑩③
◆신대원 △송경섭⑦④
◆의대원 △김영재⑩⑩
◆치대원 △김찬영⑩⑩ △박두은⑩⑩
◆행대원 △김동희⑩⑩ △김일무⑦⑤
△김호산④④ △문병항⑥⑦ △박갑철⑭⑭
△전상우⑩⑩ △정효성⑧② △조경규⑧⑦
△최봉기⑦⑦ △최성안⑧② △한일주⑥⑧
◆한대원 △박상진⑩④ △송장복⑦⑤
△이기덕⑦⑧ △황보영춘⑧③
◆AMP △강중현②⑥ △강호정③⑧
△김경덕⑩⑧ △김철우③① △박영수③③
△박재명⑩⑧ △박종인④② △송준강③③
△원종해⑥⑨ △윤태하③④ △이동우⑦⑦
△이상택④④ △이성연④④ △이순세②②

△이창호37 △이준호46 △이화일13
△정공식63 △정하택23 △조대현58
△황규홍57
◆AIP △강성권50 △공학선44
△구민철51 △납원순51 △박기동51
△박종호9 △성필선36 △신길웅10
△이명래19 △이전우13 △이태화16
△정연구30
◆ACAD △곽상하26 △김기봉50
△김대경16 △김만기7 △김은기57
△노병규77 △박동근41 △박승희50
△박용암43 △박인수17 △변희준20
△신건호15 △신태희32 △안인순55
△이문용27 △이법진48 △이상조74
△이정구22 △장준경23 △정도정71
△조강호37 △조용안29 △조현형35
△최남진34
◆ABP △백형욱36 △송기덕23

△임채호39 △황세영37
◆SGS △강원수30 △김재경1
△이강수30 △전태호30
◆CPHN △김연희3
◆APC △강연수20 △류승현19
△박만배12 △박응규20 △박종현20
△백인엽20 △손세창19 △양동주15
△이범희3 △이종국20 △이종대20
△이장우10 △임기환17 △임윤승19
△장 훈20 △정락진10 △조영대10
△조의상16 △조희원14 △주재현4
△최재영17 △황재문14
◆HPM △구본세32 △권용준27
△김능환31 △박태화20 △백명식32
△송선엽32 △유래관32 △윤진환31
△이병준22 △이용구31 △장해경32
△전필동28 △정기화32 △정준원9
△채상식17 △최현섭32 △현대우1

△홍의표9
◆AMPP △김상욱7 △김호진14
△정영민12
◆AIC △김병곤37 △김재현36
△이건수35 △이수호23 △임연주37
△전 진5 △최경하2 △황해은37
◆AFB △김명중10 △김재명7
△이광연9 △허 훈12
◆AMPFRI △김상남31 △김흥철31
△남선희31 △문용기28 △안재수31
△이우규26 △정건진31 △정형성8
△한정기1
◆ACPM △안순철3
◆FIP △박상기5
◆GLP △권기원23 △김영국6
△김지영28 △문기정28 △백종열28
△안종욱28 △윤경상22 △이영길28
△이정우13 △이혜연28

◆ALP △안철상19 △여주호20
△이방수20 △이용식19 △이태근19
△정재홍12 △황윤구20
◆AFP △김인관14 △송치호13
◆ASP △민경원27 △박도규14
△박종진27 △신화영27 △엄경열13
△유경혜27 △임석순25 △장인원10
△정인상27
◆IFP △강경태10 △권동엽11
△박만섭10 △서지희11 △유성민11
△허운순11
◆KFL △김은경13 △김진영13
△문광자13 △박상현13 △유재기16
△정연옥8 △전태일11 △최승훈7
◆FNP △공재기5 △김상현3
△노영수5 △송승현1 △안영후4
△이현송5 △임희문1 △진용두3
△차용범5

◆AWASB △김기완1 △김수원1
△남상구1 △노윤하1 △박현준1
△석재수1 △심승호1

분 담 금

◆태국지부 50만원

2014년 10월	
연 회 비	37,720,000
평생회비	35,000,000
입 회 비	580,000
분 담 금	500,000
계	73,800,000
2014년 누계	1,112,274,484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9월 26일 이후 출연해 주신 각계 동문을 소개합니다.)

원 정 수  공대53·분회 자문위원 간삼건축 상임고문 일금 50만원	신 수 정  음대59·음대동창회장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일금 50만원	이 현 수  농대60·농생대동창회장 재단법인 서현 이사장 일금 50만원	이 세 한  AIC11·AIC동창회장 GT&T 대표이사 일금 50만원
--	---	--	--

(일금 20만원) —————
◆법대 △이재후58
(일금 10만원) —————
◆인문대 △김정호90 △남유진72
△신동수82 △윤용복84
◆사회대 △김구섭72 △김희철81
△박흥배87 △양현아84 △이종선87
△지동하84 △한형종81
◆자연대 △김남수73 △황열순86
◆간호대 △이윤경65
◆경영대 △권혁세76 △김 신75
△노진만83 △서정호88 △신종열90
△장영준81 △조표훈95 △최병두74
◆공대 △강남식73 △강충원59
△공병채62 △곽삼영51 △국전표60
△권경준95 △김정천45 △김경섭79
△김근희67 △김덕원72 △김명년53
△김병주59 △김석주48 △김선홍55
△김수광59 △김신용77 △김신원64
△김용수71 △김익훈46 △김재동70
△김제택57 △김주용58 △김창세61
△김철순53 △김택규53 △김현주54
△노태욱69 △민계식61 △박 영94
△박광표47 △박신구64 △박태훈78
△변선호59 △서우원61 △손동준59
△신현욱92 △심옥진61 △안재후52
△인철호48 △양동률50 △양배근82
△여신영09 △원유철59 △윤영석60
△윤영인80 △이 전46 △이강원00
△이계수63 △이덕열75 △이동준53
△이범호54 △이봉주67 △이상호92
△이준호83 △이찬홍74 △이창갑46
△이화환74 △이환범56 △전형택85
△정주열73 △조진욱75 △조장결59
△조충희63 △지 순54 △차재근61
△천남준65 △최갑선65 △최원갑55
△최종명56 △최차봉80 △하준환51
△한규택73 △허강현81 △허수영70
△홍순목00 △황석영63

◆농대 △김종호60 △금방용85
△김남용53 △김영배78 △김영섭65
△류기락81 △박숙자62 △박승걸53
△박제범53 △박종국57 △박창서63
△서명자61 △서승덕55 △신명철63
△신용석61 △양상홍62 △오흥수55
△우건석55 △유동준56 △윤인화55
△이돈구65 △이우진64 △이정호71
△이현정64 △이혜근67 △임백빈73
△장길평62 △조영래82 △조용섭54
△조철하70 △진하영89 △최병하81
△최상수63 △홍성구65
◆문리대 △고 건56 △구자강68
△김수한64 △김종대67 △김종진58
△김태동62 △박영수71 △박용욱55
△박종오55 △송규정63 △안취준61
△엄기홍59 △유광식58 △이강승67
△이근수71 △이명숙52 △이병형67
△이장우57 △이태진61 △이해남65
△임득호64 △장순근65 △전종구70
△차재억70 △최덕인55 △최시중57
△한갑수52 △허경연55 △호문익61
◆미대 △박민여62 △서세욱46
△송유라72 △이종복62 △전영철53
◆법대 △강신우79 △강태중52
△강흥석58 △고광석63 △곽동현61
△권혁구55 △김대환61 △김덕주52
△김도선60 △김두희58 △김선규55
△김선현58 △김성길60 △김세중82
△김영수60 △김우진83 △김의재56
△김인중56 △김진우52 △김창복51
△김태현46 △김황식67 △도정환83
△류유현00 △문종수59 △민병권83
△박상우75 △박용상63 △박철근55
△박해봉83 △배경숙49 △송광수67
△송승현59 △안병익88 △여동영60
△여상조70 △오윤덕61 △유영상81
△유창종64 △윤덕순59 △이근식65
△이순기03 △이영범59 △이용훈59

△이재창56 △이재철70 △이종주85
△이주영70 △이천수61 △임승순73
△장창호63 △전성희79 △전웅진49
△정광우61 △정구영57 △정주석61
△정지형58 △조영삼81 △최재경81
△하일부57 △한봉수49 △한장은59
△한창호72 △황찬현72 △황창섭53
◆사대 △구인환50 △김남조47
△김동찬51 △김병무64 △김봉규52
△김연식51 △김정홍57 △김진원56
△김충언58 △문제세71 △박 용59
△박규홍69 △박승재59 △박찬구56
△성기훈71 △송대량60 △신동철59
△신찬우48 △안희익54 △오윤용60
△이득우74 △이원순45 △임향순60
△장재혁80 △정의상55 △정준섭61
△최기엽58 △최만희57 △최방지59
△최선길60 △황근연50
◆상대 △경연수55 △권오학57
△권이성52 △권태신68 △권희택56
△김만경53 △김성규57 △김영수58
△김용수56 △김중기54 △김진환57
△김장진58 △류종목59 △박길삼68
△박성기57 △박영주59 △박영호67
△박종석61 △박진화55 △변영일61
△사공일58 △심재엽63 △안국신65
△엄수명61 △유무성60 △유석기57
△윤영석58 △이근영55 △이길호55
△이덕종61 △이상득57 △이석채64
△이한희54 △이희준49 △임영식57
△임종두61 △주 일50 △진철평59
△최부완54 △최수일55 △한석윤54
△한찬수54 △허성길60
◆생활대 △윤혜원82 △이용호78
◆수의대 △김만영50 △김인기55
△김택수55 △김호훈60 △남기용74
△박종명61 △신현일57 △윤화중54
◆약대 △권 박61 △김선중61
△김성오81 △김한길59 △서석수51

△서영민83 △송창진54 △신화범50
△심창구67 △우종근61 △윤승로56
△윤홍중55 △이용연72 △이필양53
△이형규74 △이홍자64 △이희운67
△전재창05 △정미화59 △정연심54
△정연진69 △조영준69 △차기현59
△최유환56 △최진근77 △최학배76
△추영구45 △홍순언60
◆음대 △고순자52 △김현아86
△박정자60 △박향아80 △변유경82
△서계숙56 △신대철69 △양연섭68
△이재연92 △조영남64 △차정현67
△황영금50
◆의대 △김성환09 △김주일44
△김지현89 △김찬영46 △김창욱72
△김환규78 △노 영70 △문기찬67
△민병철48 △박인원76 △백태진74
△서동희88 △송홍식80 △신기식79
△신순철62 △신종근87 △신현철46
△유태연54 △윤정철59 △이규환54
△이도영63 △이민규86 △이봉화75
△이용희86 △이지호77 △이태규82
△임진우49 △정명관91 △정하원78
△최경진68 △최형석52 △한승수58
△한종수71 △황순욱72
◆치대 △강효식57 △김경남72
△김규진64 △김기현56 △김수남59
△김용운62 △김우철69 △김윤영58
△남용욱51 △문일환65 △박성원86
△서영수67 △서정기60 △성재현66
△신현철74 △안창영78 △이경우71
△이의석06 △이재천80 △이종오76
△이희주67 △임순모70 △조기성70
△조성복55 △차만희57 △최종석76
△한광수62 △한병소61 △허 택71
△홍현식82
◆대학원 △김상호79 △문용자72
△박정인09 △여효성03 △윤옥경75
△윤종규82 △이시운81 △정원박74
△최윤정04 △최은정02
◆보대원 △박대근63 △박순영63
△박원길65 △이규환63
◆사대원 △정정식63
◆신대원 △곽찬호69 △김이환72
△유일연72
◆행대원 △김준봉79 △양석호67
△이두현74 △정현욱88 △최순현73
◆AMP △김상봉46 △김중겸64
△남기욱32 △민경서48 △송용현72
△심계진36 △안경수76 △양성욱1
△오도환72 △유병진49 △유한섭23
△이중아37 △이호수35 △조달호7

△조인수74 △전용택81 △함태호11
◆AIP △강명영20 △고상언11
△권영익19 △김대원48 △김동하29
△김문웅4 △김승겸16 △김윤필32
△박무광43 △박영식28 △유재영36
△이명호20 △이의현20 △전영하28
△탁구현45 △한승욱27 △홍기호40
△황종영39
◆ACAD △강남주56 △김성은30
△김윤세50 △김종웅39 △노재우16
△노희찬33 △방동식27 △신영훈52
△원광호36 △이영호53 △이왕열33
△전영배5 △정동우6 △황강주48
◆ABP △유영희39 △이수남39
△이판철3
◆SGS △김광두3 △김영근6
△김영대12 △남궁락17 △박남식2
△원홍순15 △유종국24 △이종원17
◆APC △김종현7 △김철수6
△김형락3
◆HPM △김재영18 △박종엽29
△서정식27 △임신희14 △유박영30
△이형근17 △조길웅14 △최낙원16
△한훈섭10
◆AMPP △김일동6 △김종배12
△류귀식7 △장필순10
◆AIC △권성욱8 △이강록13
△이경의5 △이정재2 △이창원28
△장낙진13 △최인환34 △홍석기9
◆AFB △윤상배10 △윤한권9
△홍경래11
◆AMPFRI △강립구30 △김경호15
◆ACPM △김순갑2 △두강현10
△이동찬8 △조종수1 △최종찬8
△홍천화7
◆FIP △황귀봉1
◆GLP △권덕수15 △신용식17
△안규철24 △오석송19 △이성호13
△이용문17 △이철규18 △이효승26
△정용태9 △최도승24
◆ALP △김기식5 △서일성6
△손용근6 △최애영14
◆SPARC △김삼종13 △김인권16
△김청자13 △김태근6 △박노현15
△석종호19 △윤성환22 △임장주11
△조성원10 △황마리아8
◆AFP △이상철4
◆ASP △장기원5
◆IFP △노일호9
◆BCP △김한기3
◆ABKI △강정은3 △김용순1
△최정영3 △현상섭2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7588호 (2014.11.10~2015.02.09)

미래에셋 펀드, 좋은 결과의 뒤에는 좋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시장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투자,
미래에셋 펀드의 바탕입니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의 힘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7.71%

1년 수익률
BM 3.85%

미래에셋
아시아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30.42%

1년 수익률
BM 15.21%

미래에셋
한국헬스케어
펀드

14.12%

1년 수익률
BM -3.23%

미래에셋
소비성장 펀드

9.58%

1년 수익률
BM 7.83%

미래에셋
성장유망
중소형주 펀드

21.90%

1년 수익률
BM -3.23%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펀드

19.57%

1년 수익률
BM 5.05%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
펀드

11.80%

1년 수익률
BM -3.38%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펀드

해외채권형

6.52%

1년 수익률
BM 8.93%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플러스 펀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 제외)

- 미래에셋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A 6개월 누적: 20.01% (BM: 7.45%) / 종류A 1년 누적: 17.71% (BM: 3.85%) / 종류A 설정이후: 17.90% (BM: 4.61%)
■ 설정일: 2013.10.21 ■ 순자산: 701억원 ■ BM지수: MSCI Asia ex Japan Index (95%) + Call금리 (5%)
- 미래에셋 한국헬스케어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A 6개월 누적: 23.23% (BM: 10.72%) / 종류A 1년 누적: 30.42% (BM: 15.21%) / 종류A 설정이후: 36.18% (BM: 19.93%)
■ 설정일: 2013.01.30 ■ 순자산: 347억원 ■ BM지수(참조지수): FnGuide 의료지수
- 미래에셋 소비성장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A 1년 누적: 14.12% (BM: -3.23%) / 종류A 3년 누적: 31.00% (BM: 2.90%) / 종류A 설정이후: 117.19% (BM: 42.42%)
■ 설정일: 2005.12.30 ■ 순자산: 567억원 ■ BM지수: KOSPI
- 미래에셋 성장유망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C1 1년 누적: 9.58% (BM: 7.83%) / 종류C1 3년 누적: 39.46% (BM: 10.07%) / 종류C1 설정이후: 262.25% (BM: 137.71%)
■ 설정일: 2005.01.26 ■ 순자산: 384억원 ■ BM지수: KOSPI 중형주지수 (80%) + KOSPI 소형주지수 (20%)
-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C1 1년 누적: 21.90% (BM: -3.23%) / 종류C1 3년 누적: 27.56% (BM: 2.90%) / 종류C1 설정이후: 155.68% (BM: 100.09%)
■ 설정일: 2005.03.18 ■ 순자산: 207억원 ■ BM지수: KOSPI
-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 6개월 누적: 13.86% (BM: 8.62%) / 1년 누적: 21.24% (BM: 5.05%) / 3년 누적: 28.95% (BM: 25.49%) / 설정이후: 237.37% (BM: 142.15%) / 종류A 6개월 누적: 13.07% (BM: 8.62%) / 종류A 1년 누적: 19.57% (BM: 5.05%) / 종류A 설정이후: 9.90% (BM: 8.34%) ■ 설정일: 2004.09.21 ■ 순자산: 381억원 ■ BM지수: FnGuide 고배당 지수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A 6개월 누적: 3.75% (BM: -0.85%) / 종류A 1년 누적: 11.80% (BM: -3.38%) / 종류A 설정이후: 30.63% (BM: -2.29%)
■ 설정일: 2012.03.20 ■ 순자산: 6,333억원 ■ BM지수: KOSPI200 (70%) + MMI (30%)
-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 수익률(세전기준) - 종류C-F 6개월 누적: 3.63% (BM: 4.82%) / 종류C-F 1년 누적: 6.52% (BM: 8.93%) / 종류C-F 설정이후: 16.70% (BM: 19.83%)
■ 설정일: 2012.04.09 ■ 순자산: 4,106억원 ■ BM지수(참조지수): 정기예금 + 150bp(50%) + KIS종합(50%)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기준일: 2014.10.31 ■ 출처: 미래에셋자산운용 ■ 보수/수수료/환매방별 등에 관하여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Merry
Christmas



LOUIS CASTEL
PARIS